

한국 YWCA

2022년 1·2월호
JAN · FEB Vol.576

특집 2022년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2022~2023 한국YWCA 운동정책
회원YWCA정기총회 현장

기획

한국YWCA 100주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기후위기와 여성

기후위기와 초고령 사회를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민사회와 선거

투표는 나의 힘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한국YWCA 대선 정책의제에 대한 주요 4당 후보 답변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2022년 한국YWCA100주년 이렇게 펼쳐집니다.”



한국YWCA 창립 100주년 비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백과 성찰. Y(Young), W(Women), C(Christian), A(Association) 주제별 핵심가치와 방향성 키워드 논의 한국YWCA 100주년 인비저닝 워크숍 개최 	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100년을 향한 한국YWCA 비전 수립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념예배 기념식 기념특강 	4월 20일(수) 13: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립 100주년 의미와 비전 선포 한국YWCA 100주년 대사회적 알림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감사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YWCA 100주년, 새로운 100년에 대한 감사 한국YWCA 100년을 만들어온 YWCA 회원 시상 	11월 17일(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100주년 기념해를 감사로 마무리 한국YWCA 리더십, 사람들과 함께 해온 역사 알림
한국YWCA 100주년 기념 여성평화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YWCA 평화운동의 의미와 성과 한국사회와 YWCA 평화운동의 의미 고찰 	6월 24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Y 평화운동 의미와 성과 대사회적 공유
한국YWCA 100주년 기념 화보집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YWCA 100년 화보집 발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Y 100주년 역사 공유
한국YWCA 100주년사 발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YWCA 100주년사 준비위원회, 집필진 구성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Y 100년 역사 발간 준비
한국YWCA 100주년 기념 YWCA 역사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YWCA 초기 역사 조망 한국YWCA 역사적 성찰과 고백 한국사회와 YWCA의 역할 	7월 22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Y 초기 천원 역사 정리와 해석
한국YWCA 100주년 기념 Y-틴 전국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Y 100년 기념 청소년운동 비전 공유 	8월 30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Y 100년 이후 청소년운동 비전 선포
한국YWCA 100주년 기념 청년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YWCA 청년운동의 의미 새로운 100년, 청년운동 방향 모색 	9월 말(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Y 청년운동 의미와 비전 공유
한국YWCA 100주년 기념 역사전시관, 채플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 자료관 운영 특별전시관운영 채플실 운영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Y 100주년 활동과 운동 의미 홍보 한국Y 기록정신 공유
한국YWCA 100주년 여성평화순례-한라에서 백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지역, 디아스포라 여성 협력 교류의 장 백두산 등반 	연중 7/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평화국내외 교류와 연대 강화 평화통일역시 확산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공모(스타트업 챌린지, 공간기반 프로젝트, 청년예술가, 회원Y 참여프로젝트) 선정 지원과 모니터링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프로젝트 지원(1억원 모금) Y청년 운동성 증진 외부 청년 Y참여 경로 마련
한국YWCA 100주년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글로벌리더와의 만남(사람책방) 아시아 글로벌네트워크 제66차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파견 세계교회협의회(WCC) 11차 총회 파견 청년참여단 활동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청년 소통체계 구축 청년글로벌 리더 지원과 양성 대학·청년Y 활동 홍보
한국YWCA 100주년 기념 온라인 플랫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YWCA 100주년 홈페이지 구축 운영 YWCA 회원과 시민 참여 공간 구축 (100주년 역사관, 온라인 사진전 등) 	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주년 기념사업과 활동 홍보 Y회원, 시민 참여 확대

2022. 1·2 한국YWCA



표지이야기
2022년 4월 20일
한국YWCA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2022년 3·4월 주요일정

2월 28일	한국YWCA 100주년 인비저닝 워크숍 주제: 고백과 성찰
3월 2일	한국YWCA 100주년 인비저닝 워크숍 주제: W
3월 3일	한국YWCA 100주년 인비저닝 워크숍 주제: Y/C/A
3월 5일	연합회 법인이사교육
3월 2일~8일	후쿠시마 11주기 전국YWCA 동시다발 탈핵 캠페인
3월 7일	YWCA후쿠시마 11주기 탈핵기후 대선캠페인
3월 8일	YWCA금융경제교육 강사교육
3월 14일~25일	제66차 UN CSW(여성지위위원회)회의
3월 21일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3월 21일	쌍크머니 협약식
4월 20일	한국YWCA 100주년 기념예배·기념식

제58권 제1호 통권 576호
2022년 2월 28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 김은주 최수신나 이주영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제일프린텍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회장 인사말 | 원영희
- 05 사무총장 취임사 | 구정혜
- 특집 2022년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 06 2022 정기총회 스케치
- 08 2022~2023 한국YWCA 운동정책
- 11 회원YWCA신임회장단·권역협의회 대표
- 12 회원YWCA정기총회 현장

기획 한국YWCA 100주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 16 한국YWCA인비저닝 워크숍 | 정서연
- 18 100주년 후원모금 캠페인 | 안정희
- 20 시민사회와 선거 투표는 나의 힘 | 권수현
- 22 청년토크 청년정책, 저도 포함되나요? | 대학·청년Y
- 24 기후위기와 여성 기후위기와 초고령 사회를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 | 이윤숙
- 26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K-좀비물'의 유행과 구원에 대한 질문 | 김선영
- 28 로컬프렌들리 이야기5 커뮤니티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 김수진
- 30 YWCA변화와 혁신6 비영리법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 박훈
- 32 이달의 현장① Y-틴 전국협의회
- 34 이달의 현장②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 36 이달의 현장③ 2022 선거대응 논의 워크숍: 지방선거 기후위기 방향과 과제
- 38 이달의 현장④ 미안마 민주주의를 위한 기독교행동
- 40 이달의 현장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토론회
- 42 지역과 함께 전국1호 녹색특화매점 부산YWCA생협 | 백성희
- 44 한국YWCA 대선 정책제에 대한 주요 4당 후보 답변
- 48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신년 기자회견문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한국전쟁을 끝냅시다!
- 50 20대 대선 탈핵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대선 후보들은 진전된 탈핵 공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라!

- 51 연합회 소식
- 55 연합회 모금 현황
- 56 회원YWCA 소식

YWCA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멋진 항해를 계속할 용기!



원영희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국YWCA연합회 회장단 선출이 끝난 뒤에 문득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YWCA가 지난 백 년 동안 한반도에 존재한 힘의 근원이 뭘까?’ 그리고 잠시 후 저 목상의 깊은 곳에서 떠오른 단어는 ‘용기’였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변화와 변혁에 앞장선 기독교 여성들의 용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 떠오른 질문, ‘이제 한국 YWCA는 100주년 이후의 새로운 시간을 마주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가야 하나?’ 답으로 떠오르는 단어 역시 용기, 용기였습니다.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할 용기!

이제 회장으로 다시 세워주셨으니 그 길을 또 가야 하는 용기, 부회장님 세 분도, 또 법인이사님들 모두 다 세워주신 그 길을 순종하는 그 용기. 이 변화를 향한 용기는 매일 새로워지기 위한 용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YWCA는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 안에, 우리들을 대표로 선택하신 여러분들과 공동 책임으로 새로운 시간을 향해 나아갑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마련해 주신, 저 앞에 이미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따라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시밭길이 옥토로 변하는 기적을 함께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존경받는 크리스천 여성이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9세기 말 봉건시대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여성이 되는 일이란 정말 특별한 용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여성을 위해 일어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의 사명입니다. 평화 통일과 종전선언을 위해 나아가는 용기, 한라에서 백두까지 걷기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YWCA에 주신 평화의 사명입니다.

셋째, 생명을 지키는 용기.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노후 핵발전소 폐쇄는 절대로 경제 논리로 다가갈 수 없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 사랑의 논리로 이해하고 탈핵생명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후 위기 극복으로 RE100 생명 사랑운동’을 실천하는 데 인내와 나눔의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천하려고 YWCA 목적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정의, 평화, 생명 운동 정신에서 나온 운동들입니다.

YWCA를 백 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백 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으로 YWCA로 달려와 헌신하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2022년 현재 한국 YWCA시간 속에 계신 모든 자원·실무 활동가 여러분, 힘을 냅시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선배님들이 닦아 놓으신 길을 힘차게 달려, 하나님나라 이 땅에 이루라 하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이를 격려하기 위한 회원YWCA 릴레이 기도 순례도 구정혜 사무총장과 다시 이어 갈 생각입니다.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지속 멋진 항해를 계속하도록 무엇보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정혜

(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한국YWCA의 신입 사무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YWCA연합회와 연합회후원회, 복지사업단 세 법인의 상임이사로 집행의 책임을 맡아야 하는 그 무게가 제게는 너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총장 선임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통된 말씀이 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것이 걱정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다, 함께 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로 함께할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회장님을 비롯하여 자원하여 헌신하시는 이사, 위원님들을 뵈면서, 그리고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회원YWCA 회장, 사무총장님들 뵈면서,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YWCA 실무활동가로 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국YWCA는 YWCA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소명의 자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신 역사에 대한 경외, 성장에 대한 확신,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특히 리더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저를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YWCA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한국YWCA 100년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가기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3년 전 이미 시작한, 지속가능한 100년을 향한 도전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전국의 회원YWCA가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고 주체적인 지역운동체로 성장하며 연합

하도록 지원하고 연대하는 일, 지역과 청년의 참여가 확대된 연합회, 변화된 의사결정구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일, 회원Y와 함께 기독교여성시민운동체로서 YWCA 정체성에 기반한 정의 평화 생명의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일, 청년운동체로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활동하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때로 힘든 도전이지만 한국YWCA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시민운동 영역의 지방분권화를 선도함과 동시에 비영리법인과 시민사회단체 운영의 제도적 한계들을 개선해 나가는 의미있는 도전이 될 것임을 믿고 끈기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WCA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조직이 되기 위해 애써 오신 선배님들의 노력, 남겨주신 유무형의 유산들이 헛되지 않도록 전통과 새로운 비전을 연결하고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인 이사님과 위원님들이 공적 책임을 통해 자원활동의 감사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활동하는 동료들이 지속가능하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사무총장이 되겠습니다. 회원YWCA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연합하는 데 힘쓰는 사무총장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잘 듣고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많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 붙들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한 100년 꿈꾸며 구조 바꾸고 전국 중점 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 채택

(사)한국YWCA연합회는 2월 17일(목) 오후 1시에 온오프 라인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52개 회원YWCA 대표를 비롯하여 개정된 정관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연합회 직무상대표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예배를 드렸으며, 공천위원·법인이사 선출과 2022-2023년 한국YWCA 운동 및 운영 정책 채택, 2022년 한국YWCA연합회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는 지난해 7월 임시총회를 통해 개정된 정관에 따라 총회 구성원과 의결권 부여 방식이 변화되고 의사결정 구조 개편이 실행되기에 그 어느 총회보다 중요한 총회였다.

총회원은 회원YWCA 회장 또는 위임받은 부회장과 사무총장으로 회원YWCA당 2명의 대표가 참석하게 된다. 또한 연합회의 직무상의 대표는 대학·청년Y전국협의회 회장과 연합회 상임이사가 포함된 법인이사,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이사장, YWCA 복지사업단 이사장, Y-틴전국협의회 회장, 연합회 국장, 법인사회가 정하는 대표 10명으로 총 136명의 총회원 구성이다. 법인사회가 정한 대표 10명은 명예연합위원 4명, 공천위원장 1명, 실행위원 임기종료자 중 임원 경력자 2명, 대학·청년Y전국협의회 임원 2명, 연합회 청년활동가 1명으로 선임하여 구성했다. 총회원들에게는 모든 안건 의결에 있어 동일하게 1표씩 의결권과 투표권이 부여되며 의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했다.

연합회 정책채택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한 후에는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단 선출이 이어졌다. 핸드폰으로 보내진 링크로 본인 확인 후 전자투표로 진행했으며,



회장단으로 원영희 회장, 조은영 제1부회장, 이은영 제2부회장, 조은지 청년부회장이 선출되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청년부회장(조은지 청년)이 최초로 선출됐다. 이는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신설한 청년부회장제도에 따른 결정이다.

또한 연합체 의사결정구조에 연합회와 지역 비율을 각각 35%, 청년 비율을 전체의 30%로 둔다는 개편 방침(지난 임시총회서 결정)에 따라 35세 이하인 청년 6명을 법인 이사로 선출했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100년 역사를 가진 한국YWCA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며 보다 책임있게 시민운동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배경이 됐다.

한국YWCA연합회의 새로운 조직 구조는 △법적 책임구조인 법인사회와 결정구조인 실행위원회로 이원화 됐던 의결구조를 법인사회로 일원화 △법인이사 수를 21명으로 구성 △회원YWCA대표와 청년대표의 비율을 높여 회원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는 연합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2022년 2월~2024년 2월까지 실무활동을 이끌어갈 한국YWCA의 신임회장단 선출 결과. 이번 총회에서는 청년들의 활동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연합회 최초로 청년부회장을 선출·인준했다.



정기총회 중에 연합회의 2021년 사업을 보고했다. 중간은 사단법인이 된 울산, 제주, 광주YWCA의 기 전달 장면. 하단은 7월 임시총회 장면과 2021년의 이사교육 장면이다.

전국 중점 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 채택

구조 개편으로 청년 대표성을 확보한 한국YWCA는 100주년을 맞은 올해 탈핵, 성평등, 평화통일, 청소년·청년 등을 주제로 한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국 회원 YWCA가 공통과제로 펼칠 사업은 탈핵기후생명운동인 'YWCA RE100 운동'이다.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자는 글로벌에너지 전환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한국YWCA가 새로운 각오로 시대적·역사적 운동을 지속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위해 전국 8만 여 회원들은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기후위기 청년 활동가 양성, 2030 탄소감축목표 로드맵 촉구, 기후위기·코로나 시대 남북협력 체제구축 촉구하는 여성 평화순례를 진행하는 등의 목표를 수립해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원영희 회장은 "한국YWCA는 조직 개편으로 역사성을 확보한 건강한 기독여성단체로서 책임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했다"며 "새로운 체계로 시작되는 2022년은 연합회와 회원YWCA, 청년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도전하고 참여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2023년 한국YWCA 운동정책

1) 기후위기대응 주류화


한국YWCA는 창립99주년을 기하여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우리의 시대적 역사적 운동으로 결의한 바 있다.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 이슈이자 현 시대 모든 사회적 현상들과 연관된 통합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과 국제 사회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각 국가들의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후선진국들은 에너지 및 산업 체제 전환에 빠르게 돌입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1년까지 2030 탄소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개인의 생활을 넘어 산업계와 국가 정책 단위에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있다. 이에 한국YWCA는 각 운동영역에서 기후 위기 대응 주류화를 전략으로 삼아 ‘탈핵기후생명운동’을 52개 회원YWCA가 함께 전개해나갈 ‘전국중점운동’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청년여성 주도성 확대

청년과 여성은 YWCA 운동 주체의 핵심이다. YWCA는 구조 변화의 핵심에 청년성 확립을 두고 있으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책임과 역할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년 대표성을 확대하는 체제로 개편하였다. 또한 모든 활동에서 청년 비율 확대와 자치성 강화를 YWCA 운동성 강화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통과하면서 청년 여성들은 불평등의 피해자를 넘어, 기후 정의를 위한 체제 전환의 주체로 서도록 요청받고 있다. 또한 전쟁과 갈등의 위협 속에서 화해와 평화의 담지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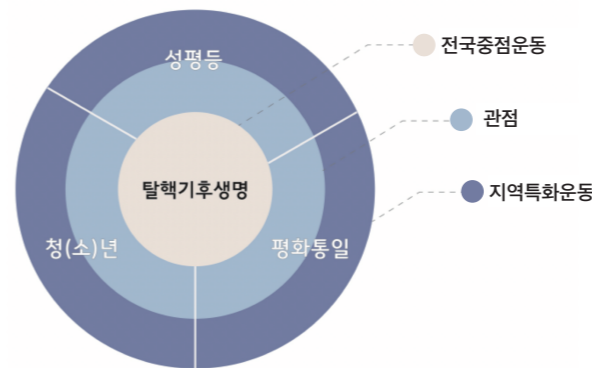
되고 있다. YWCA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 자치적 운영과 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여성 주체성 확보를 운동 전략으로 삼고자 한다.

3) 선거 대응 및 운동의 지역화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 정책 이행 평가와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들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 사회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가의 역할과 위상,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외교적인 노력 등도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다. 한국YWCA는 탈핵 및 탄소 중립사회 구축,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평화 문화와 체제 구축, 경제정의가 있는 청년의 삶 등을 주요 대선 의제로 다룬다. 각 지역에서는 포스트 대선 정국 속에 지역 이슈가 매몰되지 않도록 지방선거가 준비되어야 한다. 한국YWCA는 회원YWCA 조직과 구조 변화를 통해 회원YWCA가 본연의 목적을 발현하는 지역운동체로서 자리잡도록 지원하고 있다. 운동 영역에서 지역의 관심이나 이슈로 구체화되고, 시민 주체성이 확대되며, 지역 변화와 시민사회 변혁을 통해, 각자의 지역과 사회 속에서 시민운동체로서 역할을 강화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YWCA는 성평등, 청(소)년, 평화통일 영역을 지역특화운동으로 제안하며, 회원YWCA가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활동을 통해 운동의 지역화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 

전국중점운동 : 탈핵기후생명운동

한국YWCA는 기후위기 전면 대응을 위해 2022-2023년 전국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을 결의하고, 전국 차원에서 청(소)년, 성평등, 평화의 관점을 반영한 중점운동을 전개하며, 회원YWCA 및 권역별로는 각 지역 상황에 적합한 특화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전국과 지역이 따로 또 같이 자치와 자율, 연대와 협력으로 유기적인 방식을 통해 운동을 확산해나간다.



활동방향

1. 기후정의 체제 전환 과정에 청(소)년 주체성 확립
2. 성인지 관점의 YWCA 탈핵기후생명운동 전개
3.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탈핵기후위기 대응

*탈핵기후생명운동은 전국중점운동으로 진행하고, 청소년, 성평등,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확장되어 나가며, 확대된 마지막 원은 지역특화운동으로 회원YWCA들이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음. 원의 핵심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그림으로 운동을 선택하여 확산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전국공통과제 : YWCA RE 100 “YWCA 다시 100년, RE 100!”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자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캠페인 것으로, “RE”로 ‘다시’ 시작되는 100년과 ‘재생에너지’의 중복 RE100 (Renewable Energy 100)에, 한국YWCA 새로운 100년 적 의미를 표현함. 이를 맞이하여 시대적·역사적 운동으로 지속한다는 의미를 담은

나부터 RE100

- ① 제로 웨이스트: 전기, 플라스틱, 육식, 석유, 쓰레기 줄이기 등

우리Y RE100

- ① 기후위기 청(소)년활동가 양성 : 100인 발굴
- ② 대상별 에너지 전환교육 확대
- ③ Y건물 에너지 제로화 : 에너지 효율 조사 및 소비감축, 건물에너지체제 전환

지역 RE100

- ① 2030 탄소감축목표 로드맵 촉구 (대선·지선 대응)
- ② 기후정책 수립 과정 여성 참여율 50% 확대(지자체 탄소중립위원회 등)
- ③ 기후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회원Y·도협의회)
- ④ 지역 사회 연계 통한 교육 및 에너지전환활동 (교회·학교·아파트단지·찾아가는 에너지교육, 로컬푸드 교류, 제로웨이스트샵 등)

코리아 RE100

- ① 성평등한 탈핵기후정책 제안 (선거 대응)
- ② 탈핵 법제화 촉구 활동
- ③ 에너지체제 전환과정의 여성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촉구
- ④ 기후위기·코로나 시대 남북협력 체제 구축 촉구 (100주년 기념 여성평화순례 연계)

지역특화운동 : 청(소)년, 성평등, 평화·통일

<p>청(소)년운동</p>	<p>청(소)년이 지역사회와 일상에서 시민으로서의 존엄성을 획득하고 주도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회원 권리 확대를 위한 참여 구조 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리더십 발굴 및 지원 청(소)년 의사결정구조 참여 확대 지역 사회 아젠다 발굴 및 실천(선거 대응) 청(소)년 자치 활동 조직과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반 청(소)년 자치활동 조직체 구성 지역 사회 이슈와 YWCA 청(소)년 운동 연결 지속가능한 청(소)년 운동 기반 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YWCA 청소년운동 실무 활동가 활동 지원 온오프라인의 안전한 공간 연구 및 운영 청(소)년운동 확대를 위한 지역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p>성평등 운동</p>	<p>모든 형태의 젠더폭력을 철폐하고 여성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역량을 강화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폭력 근절 기반 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청소년, 학교연계 등) 공공정책 홍보물 및 대중 매체 모니터링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사회 성평등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활동(선거 대응 등)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및 여성 청년 일자리 창출 성별임금격차 해소 활동 기독여성주의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독여성주의 교육 및 관련 활동 지역 교회 연계 성평등 문화 확산
<p>평화통일운동</p>	<p>일상 속에서 평화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참여와 교류와 대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기반을 마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 인식과 문화 확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교육과 평화감수성 증진 활동 지역 사회 연대를 통한 한반도중립평화캠페인 확산 평화·통일 분야 여성 참여 촉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평화기구 여성 참여 확대 여성·청년 평화 교류와 연대 강화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여성·어린이 인도적 지원 남북교류와 협력 방안 마련

5개 권역대표

경기권역대표



수원YWCA
한금진

경상권역대표



울산YWCA
김덕순

경인강원권역대표



서울YWCA
이유림

전라제주권역대표



제주YWCA
고미연

충청권역대표



대전YWCA
정혜원

2022 회원YWCA 신임회장·권역협의회 대표



김해YWCA 김혜진

- 2015~2017 김해YWCA 인사위원회 위원장
- 2015~현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 2015~2021 김해YWCA 제2부회장
- 2022~현 김해YWCA 회장



대구YWCA 김연희

- 1985~1990 대구YWCA 청년위원회 위원
- 1991~2013 대구YWCA 청년위원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회 위원장
- 2014~2021 대구YWCA 1,2부회장
- 2022~현 대구YWCA 회장



원주YWCA 이수복

- 2016~2018 원주YWCA 이사
- 2019 원주YWCA 서기이사
- 2020~2021 원주YWCA 제1부회장
- 2022~현 원주YWCA 회장



익산YWCA 손계영

- 2005~2008 익산YWCA 이사
- 2007~2021 익산YWCA 강사
- 2018~2021 익산YWCA 서기이사, 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현 익산YWCA 회장



전주YWCA 이현순

- 2008~2014 전주YWCA 이사
- 2015~2020 전주YWCA 부회장, 위원장
- 2022~현 전주YWCA 회장



천안YWCA 한정순

- 1999, 2013~2016 천안YWCA 이사
- YWCA 부회장, 친환경운동위원, 인사지도력위원장
- 2022~현 천안YWCA 회장



통영YWCA 원필숙

- 2014~2017 통영YWCA 부회장
- 2018~2019 통영YWCA 회장
- 2020~2021 통영YWCA 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현 통영YWCA 회장



평택YWCA 윤영순

- 1999~평택YWCA 창립준비위원회 위원
- 2016~2017 평택YWCA 제2부회장
- 2018~2021 평택YWCA 제1부회장
- 2022~현 평택YWCA 회장



포항YWCA 김인애

- 2018 포항YWCA 직업교육개발위원회 위원
- 2021 포항YWCA 부회장
- 2022~현 포항YWCA 회장



하남YWCA 배운례

- 2006~2009 하남YWCA 이사
- 2010~2011 하남YWCA 회장
- 2012~2021 하남YWCA 이사
- 2022~현 하남YWCA 회장

회원YWCA 총회 현장

우리 YWCA 이것만은 특별하다

1월부터 2월 사이에 전국 52개 회원 YWCA는 정기총회를 열고 전년도 활동과 사업을 보고하고, 올해 진행할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했다. 또한 회원 YWCA를 대표하는 회장을 선출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청권역

- ① 논산YWCA 정기총회 특송 ② 대전YWCA 헌신의 시간 ③ 세종YWCA 케이크 커팅식
- ④ 제천YWCA 정기총회 단체사진 ⑤ 천안YWCA 정기총회 단체사진
- ⑥ 청주YWCA 새해 희망 메시지 작성 ⑦ 충주YWCA 정기총회 등의 의결안 채택 장면



경인·강원권역

- ①강릉YWCA 임명장 수여 및 선서를 하고 있다. ②동해YWCA 정기총회 후 찍은 단체사진 ③서울YWCA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 ④속초YWCA 개회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⑤원주YWCA 회장 이·취임식 ⑥인천YWCA 정기총회 후 찍은 단체사진



경기권역

- ①고양YWCA 정기총회 후 찍은 단체사진 ②남양주YWCA 백합회 장기근속상 수여 후 찍은 사진 ③성남YWCA 정기총회 진행 모습
- ④수원YWCA 봉사상을 수여하고 있다. ⑤안양YWCA 정기총회 안건을 심의하고 동의 재청을 하고 있다.
- ⑥하남YWCA 정기총회 대면참석자 단체사진



경상권역

- ① 거제YWCA 봉사상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다
- ② 김해YWCA 정기총회 후 찍은 단체사진
- ③ 대구YWCA 정기총회 단체사진
- ④ 마산YWCA 신입이사, 공천위원 선서
- ⑤ 부산YWCA 이사 및 공천위원 인준
- ⑥ 양산YWCA 정기총회 단체사진
- ⑦ 울산YWCA 정기총회 단체사진
- ⑧ 진주YWCA 은퇴이사 및 실무자
- ⑨ 진해YWCA 정기총회 1부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 ⑩ 창원YWCA 대면참석자 단체사진
- ⑪ 통영YWCA 정기총회 단체사진
- ⑫ 포항YWCA 축하 떡을 커팅하고 있다



전라·제주권역

- ① 광양YWCA 정기총회 후 찍은 단체사진
- ② 광주YWCA 정기총회 후 찍은 단체사진
- ③ 군산YWCA 정기총회 단체사진
- ④ 남원YWCA 차세대 장학금 전달식 진행 후 찍은 단체 사진
- ⑤ 목포YWCA 정기총회 후 찍은 단체사진
- ⑥ 서귀포YWCA 정기총회 후 찍은 단체사진
- ⑦ 순천YWCA 10년 봉사상을 시상하고 있다
- ⑧ 여수YWCA 정기총회 후 찍은 단체사진
- ⑨ 익산YWCA 유명태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⑩ 전주YWCA 정기총회 후 찍은 단체사진
- ⑪ 제주YWCA 이사 및 실무자 단체사진



창립 100주년 한국YWCA, 새로운 100년의 꿈을 꾸다

| 정서연

(사)한국YWCA연합회 100주년 실무팀장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YWCA는 지난 100년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며 함께 꿈꾸기 위한 시간으로 '고백과 성찰', 'Y', 'W', 'C', 'A' 다섯 개의 주제로 2월 28일, 3월 2일과 3일 '한국YWCA 100주년 인비저닝 워크숍'을 개최했다.

함께 꿈꾸는 사람들

100년 전 일제 암흑기 조선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꾼 세 명의 여성-김활란, 김활란, 유각경-들이 있었다. 일제 식민지 시대 아래 봉건사회 관습이라는 이중 억압을 받고 있던 여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조선에 반드시 YWCA를 세워야 한다는 결의로 1922년 한국YWCA가 시작되었다. 100년 전 시작된 꿈은 이 땅의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지난 100년 간 한국사회에서 YWCA 운동과 활동을 통해 펼쳐졌다. 이 꿈은 야학운동, 공창폐지운동, 전쟁 중 고아와 소녀를 위한 구호사업과 교육, 여성직업교육, 근로여성성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법개정운동, 여성직종개발, 소비자운동, 청소년운동, 호주제폐지운동, 평화통일운동, 생명사랑공동체운동, 탈핵운동, 성평등운동 등으로 펼쳐졌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살피고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지금, 새로운 100년의 출발선에 선 한국YWCA는 100년 전 '새 하늘과 새 땅'의 꿈을 꾸었던 여성들처럼 새로운 100년의 꿈을 꾸고 준비하기 위한 비전 워크숍을 '고백과 성찰', 'Y', 'W', 'C', 'A' 다섯 개의 주제로 진행했다.

한국YWCA의 역사는 기독교여성들의 역사이자 시민들의 역사다. 그렇기에 새로운 100년에 대한 꿈도 많은 이들과 함



께할 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YWCA의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워크숍 개최 방식이 정해지면서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YWCA의 꿈을 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YWCA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YWCA와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워크숍 개최에 앞서 YWCA의 비전이 모두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100년에 이루어갈 Y.W.C.A의 가치와 비전을 작성하는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실시한 'YWCA 비전 수립을 위한 키워드 설문조사'에 YWCA 회원, YWCA 프로그램 이용자, YWCA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등 약 1천 여 명이 참여했다. 새로운 100년의 시작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성찰과 회개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YWCA가 하나님 앞에, 한국사회 앞에 회개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고백과 성찰', 100년 전 선배들이 YWCA를 시작한 창립정신이 새로운 100년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이어나

가야 하는 YWCA '창립정신' 그리고 새로운 100년, 새로운 시대 가운데 확장하거나 재해석되어야 할 Y.W.C.A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응답해 주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암묵적 친일활동, 민주화운동에 소극적이었음, 도전과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함 등을 YWCA의 '고백과 성찰'의 내용으로 답변했다. 'YWCA 창립정신'으로 주체성(65%), 여성해방(46%), 청년성(41%)을 선택했고, 'Y(young)' 방향성의 키워드로 청년성(62%), 도전(50%), 성장(31%) 'W(Women)'의 키워드로 성평등(61%), 다양성(39%), 진취성(39%), 리더십(32%) 'C(Christian)'의 키워드로 평화(55%), 기독교성(52%), 정의(30%), 생명(29%), 'A(Association)'의 키워드로 연대(66%), 네트워크(49%), 지역성(27%), 민주주의(25%) 순으로 응답했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참가자들의 기대와 소망을 알 수 있었다.

'한국YWCA 100년 비전 공작소'

2월 28일부터 한국YWCA 100주년 비전 워크숍을 열게 된다. 워크숍의 이름은 '한국YWCA 100년 비전 공작소'. 제목에 드러난 것처럼 이 시간은 새로운 100년의 꿈을 꾸고 서로 나누며,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보는 시간

이다. 조은영 부회장(100주년 기념행사분과 위원장)의 진행으로 '고백과 성찰', 'Y', 'W', 'C', 'A' 다섯 개의 주제별로 16명씩 참여했다. 회원YWCA 구성원 8명, 연합회 구성원 8명이 모인 16명은 우리의 창립정신과 그룹별 주제를 새롭게 정의의 내려보고, 새로운 100년에 이루고 싶은 YWCA의 모습과 이를 위해 5년 안에 이뤄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YWCA 새로운 100년에 대한 비전과 미션을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지난 100년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며 함께 꿈꾸는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은 하나님께서 YWCA에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 앞에 자신을 정비할 수 있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꿈을 꾸었던 세 명의 여성들처럼,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 평화, 생명'의 새 날의 꿈을 공유했다.

1천 여 명이 함께 나누어준 비전 키워드 설문 결과와 비전 워크숍 결과로 정리된 '새로운 100년을 향한 YWCA 비전 선언문'은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선포된다. 그리고 선포된 YWCA 비전은 우리들의 미션이자 사명으로 여기며 시대와 사회 속에서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한' 항해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한국YWCA 100년 비전 공작소'의 작업 과정

주제	상세주제	진행
준비하기	Warm-up ·소개 워크숍의 흐름, 참여 및 실행방식에 대한 이해 ·기대 워크숍을 통해서 얻고자 기대하는 것은?	조은영 부회장 (기념행사분과위원장)
시작하기	Intro ·검토 설문조사 자료에서 얻게 된 아이디어	
Y의 '봄'	들어다보고 내다보기 Post It! 1. 우리의 창립정신을 재정의하기. 주요단어 중심으로 2. 우리 그룹의 주제 재정의하기. 주요단어 중심으로 Group Discussion.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주제화하여 논의	조별 좌장 퍼실리테이터
	내다보고 바라보기 Post It! 3. 새로운 100년에 이루고 싶은 Y의 모습. 주요 단어 중심으로 4. 3과 연계하여 5년 안에 이뤄야 할 일 Group Discussion.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주제화하여 논의	
나누고 묻기	Presentation&Sharing 조별 논의 내용 공유를 위한 조별 발표	조은영/조별 좌장
함께 나누기	Wrap-up ·논의 결과 종합 ·워크숍 과정에 대한 피드백 및 소감 나누기	조은영

한국YWCA 100주년 모금사업 안내

1922년 기독교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창립한 한국YWCA가 올해 100주년을 맞습니다. 한국YWCA는 지난 100년동안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을 이루어 희망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대적 소명에 부름 받아 한국사회의 변화에 앞장서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100주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세상을 꿈꾸는 YWCA의 100주년을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이루어갈 새로운 100년에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1.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YWCA 새로운 100년은
청년과 지역으로”

총 1억 원의 기금을 모금하여 공모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지역에서의 활동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 스스로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청년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청년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100명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 모금 목표액 : 100,000,000원
- 모금 기간 : 1차 마감 - 2022년 3월말
- 프로젝트 공고 : 2022년 4~5월
- 프로젝트 지원 : 2022년 6월~11월말
- 후원방법 : 계좌 이체, 홈페이지 온라인 모금함

- ▶ 1구좌 100만원, 기관별(회원YWCA) 1구좌 후원, 소액후원 가능
- ▶ 후원계좌 : 301-0193-6894-41 한국YWCA연합회

2. 100주년 기념 사업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나가는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 2월~3월 : 100주년 비전 수립
- 4월 : 100주년 창립기념 행사
- 6월 : 100주년 여성평화포럼, 100주년 기념 화보집 발간
- 6월~11월 :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수행
- 6월 : 100년사 편찬 준비
- 7월 : 100주년 역사포럼
- 7월 : 100주년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산 편>
- 11월 : 100주년 기념 축제
- 연중 : 청년 글로벌 네트워크 (청년 리더들의 글로벌 리더와의 만남, 국제회의 파견)

3. 1922 장학금

“1년에 1번, 1만원으로
청소년과 대학청년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 주세요”

‘1922 장학금’은 YWCA 창립 정신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매년 1만원을 후원하는 1922명의 후원자를 모아 한국YWCA 창립 100주년까지 약 100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YWCA 100주년을 맞아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 후원 방법 : 계좌이체, 홈페이지 온라인모금함
- ▶ 후원 계좌 : 농협 301-1922-0000-31 한국YWCA연합회

▶ 후원자 예우

- 100주년 기념편지와 기념품 발송
- 홈페이지, 월간<한국YWCA>, 기념 자료집, 영상 등에 명단 기재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 문의 : 100주년팀 모금 담당 부장 안정희(02-6954-4817)



- ▶ 후원방법 : 계좌이체, 홈페이지 온라인모금함
- 100주년 기념사업후원 또는 사업별로 지정하여 후원 가능합니다.
- ▶ 후원계좌 :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투표는 나의 힘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비호감 대선의 책임은 정당들에게 있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대선) 과정에서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일부는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시민들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 근본적인 책임은 정당들에게 있다. 무엇보다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시민이 주권자라고 하지만 투표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주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반면, 투표의 결과로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들은 주권자의 역할, 즉 공동체 문제들에 대한 의사 결정권한을 독점적으로 수행한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주권을 행사하는 날에도 온전히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시민들은 정당들이 제시한 선택지들 내에서만 선택권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무소속 후보를 찍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민들은 정당들이 내놓은 후보들 중 한 명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보를 제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며, 이를 시민들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들은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후보를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들이 누구를 찍어야 할지 말지, 투표를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한다는 것은 정당들이 그

만큼 매력적인 후보를 내놓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번 20대 대선을 비호감 대선으로 만든 책임은 정당들에게 있다.

거대양당 후보들만 나의 선택지 안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재고의 시간을 갖기를 권하고 싶다. 우선,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어떤 후보군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통령 후보는 14명이다. 이 모든 후보를 다 고려해도 선택지가 없다는 것일까?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때 대부분은 거대양당 후보들만을 전제한 경우가 많다. 물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어느 정도 가능한 선택지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선택지 안에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긍정적이지는 않다.

왜 거대양당을 제외한 후보들은 선택지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까? 대통령의 자질이나 자격이 부족해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정당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들을 보면, 후보의 자격과 자질이 후보를 결정 못하는 핵심 기준은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집권 능력이 부족하거나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 수가 3명밖에 되지 않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6명의 의원을 보유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후보를 선택하는 또는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다. 그런데 강력한 양당체제가 작동하는 한국 정치에서 거대양당 후보만 선택지로 고려하면 변화와 개혁은 요원하다. 찍을 후보가 없는 이유가 나 스스로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변화와 개혁을 원한다면, 선택할 후보군을 넓히고 다른 새로운 선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 가진 한 표의 힘은 결코 적지 않다.


주권자가 투표를 포기할 때 개인의 삶과 민주주의 모두 위험해진다

최대한 많은 후보들을 놓고 고민해도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투표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건 맞지만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는 투표를 했을 때보다 더 크고, 실질적 가능성이 높다.

한국 선거제도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1표라도 많이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구조이다. 투표율이 낮아도 당선자를 뽑는 데 문제가 없다. 정당들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선자를 낸 정당들은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투표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다. 왜냐하면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지자가 아니며, 따라서 이들이 투표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계속 집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권력남용의 위험

성을 증가시켜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중요한 문제는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가 정책결정 과정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결국 피해는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선거이다. 그리고 ‘1인 1표’라는 정치적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선거권은 1원 1표에 기초한 불평등한 경제권력 그리고 이와 결탁한 정치권력을 주권자인 시민이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차선 또는 차악이라도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주권자의 의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변화를 원한다면, 투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득표율은 정당의 집권 정당성과 가능성, 승패 요인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이며, 정당들은 자당이 얻은 표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 간 표에도 반응하고 고민하게 된다.

투표는 당선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주권자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정치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표도 사표가 아니다. 현재 한국의 거대양당들이 자정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기에 주권자인 시민들마저 투표를 포기하면, 한국 민주주의 자체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나의 한 표가 가진 힘을 믿고,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기를 바란다. 

청년정책, 저도 포함되나요?

| 대학·청년YWCA

2022년 3월 9일, 다가오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YWCA 대학·청년들이 모여 이번 대선후보들의 정책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022년 첫 청년토크는 온라인 회의 플랫폼 'zoom'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역시 청년토크에 함께한 청년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신는다.

청소년이 유권자가 된 게 맞아?

백호 : 벌써 대선이야.

흑호 : 나는 태어나서 '처음'하는 투표라 기대돼.

호랑 : 나도, 처음해 보는 투표라서 너무 떨려.

랑이 : 두 번째인데도 투표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 대선 후보들 정책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없고.

흑호 : '18세 참정권'이 통과된 이후로 첫 대선이잖아. 참정권은 생겼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나서길 어려워하는 것 같아. 내 동생도 투표할 생각이 없더라고.

호랑 : 응. 그런 것 같아. 참정권만 생겼지 투표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투표하기가 무섭지.

백호 : 정책은 통과됐지만 여전히 청소년 선거에 대한 자율보장이나 선거 비용, 실질적인 정치 참여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랑이 :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하려면 부모님 허락이 필요한 거 알아? 선거권만 가졌지 여전히 청소년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는 불가능해.

호랑 : 진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절대 진보정당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네?

랑이 : 맞아. 그것도 그런데 부모님이 자신이 지지하는 당에 자녀를 몰래 입당시키는 경우도 있대. 청소년들을 정치에 악용하는 거지.

백호 : 말로만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지 또 다른 통제에 막힌 거네.

청년정책 속 배제된 청년들

흑호 : 대선후보들 공약은 다들 봤어?

백호 : 나한테 중요한 정책 위주로 봤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도움되는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

랑이 : 이번에는 특히나 2-30대 청년들에 대한 공약이 많은 것 같더라.

호랑 : 청년들의 삶이 워낙 팍팍하니깐 그렇겠지? 어떻게 해서든 표를 받아야하니깐.

흑호 : 이걸 좋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대선은 처음인 것 같아.

호랑 : 옛날에는 부모님의 정치 성향을 따라가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청년들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뽑다보니깐 다들 청년들 마음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백호 : 우리 부모님도 나보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 안 뽑는다고 뭐라고 하시더라.

호랑 : 근데 난 예전에도, 지금도 청년정책이 많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현실적으로 삶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거든.

랑이 : 나도 그래. 모든 청년이 대상인 척 광고하는 정책도 들

어가서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청년들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고, 지역에 따라서도 청년정책이 너무 달라서 그런 것 같아.

백호 : 맞아. 특히나 지역으로 갈수록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더 없어. 난 서울이나 경기도 청년들이 부럽더라.

흑호 :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진즉부터 청년위원회나 청년센터를 운영하면서 관심을 가졌는데 지역은 이제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지.

백호 : 청년들이 자꾸 지역을 떠난다고 뭐라 하는데 지역에서부터 청년들한테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깐 떠나지.

호랑 : 청년정책은 특히나 모든 청년이 아니라 일부 청년들만 혜택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세대갈등, 청년들 내부 갈등을 만드는 것 같아.

선거캠프 속 여성은 어디 있나요?

호랑 : 이번 대선 후보 중에 여성 후보가 두 명이요?

랑이 : 한 명도 없던 과거에 비해 조금씩 늘고 있긴 하네.

호랑 : 그래도 아직 함참 멀었지. 어딜 가나 여성 정치인은 아주 소수야.

백호 : 유력 후보들 선거캠프 구성원 봤어? 20명 가까이 되는 측근들 중에 여성은 아예 없거나 한 명 뿐이더라고.

흑호 : 다른 나라들은 남녀동수내각을 구성한 지가 언젠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초구나. 그러면서 여성정책을 위해 힘 쓴다고? 웃겨 정말.

백호 : 젠더 이슈를 말한다는 사람들이 꾸린 선거캠프가 맞긴 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여성 정책에 신뢰가 안 간다.

호랑 : 최소한의 남녀비율도 못 맞추는데 젠더 이슈를 말하는 거 봐. 대선 전에 반짝 관심가지는 척 하는 거지.

랑이 : 선거캠프에서부터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성평등한 정책이 만들어질텐데 이번에도 별 기대가 안되네.

20대 대선은 젠더전쟁

백호 : 대선에 대한 청년들 생각을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같은 세대인데도 여성, 남성끼리 갈등이 많은 것 같아.



흑호 : 나도 그 생각해. 어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SNS에 올리질 않나, 또 어떤 후보는 '닷페이스'에 출연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 왜 자꾸 여성을 가지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지 모르겠어.

호랑 : 이정도면 20대 여성은 유권자가 아닌 정치 도구로 밖에 생각 안하는 것 같아.

흑호 : 젠더 이슈를 잘못 활용하는 후보들 때문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젠더 갈등이 표면적으로 자꾸 들어나는 것 같아.

랑이 :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청년들끼리 싸우게 하는 게 맞아? 이젠 진짜 환멸난다.

백호 : 생각해 보면 2030 청년들은 여자든 남자든 똑같이 힘들어. 누가누가 더 힘든지 내기하는 거야? 우리끼리 싸우면 뭐 해? 해결되는 게 없는데.

이 사회가 청년들이 살기에 너무 각박해.

흑호 : 우리 전부 기회가 없는 삶에 지쳤어.

젠더갈등에 휘말릴 게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해야지. 우리는 똑같은 피해자야. 🇂🇰

기후위기와 초고령 사회를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

|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이제인지 저제인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일상화된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미크론 감염은 이제 지인들 몇 명이 감염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정도로 주변을 좁혀오고 있어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지만, 이 현상이 이제 코로나가 독감과 같은 엔데믹 감염으로 정착되는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져오는 ‘거리두기’ 방침은 견고하고, 영업시간 제한, 이용 시설 봉쇄 지침 또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누구도 비켜가지 못하지만, 이 재난의 시간의 고통을 더욱 크게 견뎌야 하는 이들은 돈과 정보, 사회 참여 등, 재난에 맞설 삶의 자원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 약자들 가운데는 이미 인구의 20%에 근접해 가는 노인들이 있다(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인구 20%의 ‘초고령화사회’가 된다).

노인들에게 더욱 짙게 드리운 ‘코로나 블루’

울겨져 개인적 경험이긴 하나 어느 때보다 많은 지인들 부모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코로나로 그동안 가시던 경로당도 못 가시고 혼자서 힘들어하셨다”, “운동장이라도 좀 안전하게 걸으려 했는데 학교도 못 들어오게 해서 그나마 햇빛 쬐며 걷는 것도 못하셨다”, “노인회관에서 같이 밥 해먹고 춤추고 화투치며 놀았는데, 이제 어둔 방구석에 누워만 있다” 등등, 고립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노쇠해진 어르

신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노인들이 그나마 없는 자원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활기를 찾을 수 있던 공동체의 모임도 거의 사라졌다. 불편한 몸이라도 움직여서 운동이라도 해보려 하지만 공원 체육시설에도 정자에도 노란 차단띠만 걸려 있어 그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우울을 말하는 ‘코로나 블루’는 노인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와 70대의 자살 생각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지자체 조사로 나타난 우울 척도 또한 노인들이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 한다.

노인들의 우울과 고립감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경로당 폐쇄, 노인프로그램 중단 등 공동체 시설, 혹은 공공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감염 우려 때문에 노인 돌봄을 담당하던 요양보호사 방문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가족을 만나 것조차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은 노인들의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쇠약을 더욱 빠르게 만든다. 그나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들은 가족들로부터 여러 가지 정서적 지지와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홀로 사는 노인들은 매일의 일상이 고립되기 쉽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 고령자 가구는 438만 8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1.8%이고, 이 가운데 약 34%인 150만 가구가 1인 가구이다.

모두들 이 기후위기 시대의 재앙인 코로나 속에 힘겨운 버티기를 한다. 사회활동이 많은 청년이라고 해서 이 정서적

우울을 비켜가겠는가만, 노인들은 물리적 폐쇄나 단절을 뛰어넘어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절, 소외감, 고립감을 겪으며 그 고통은 더욱 커진다. 그렇지 않아도 겨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집밖으로 나서게 했던 은행, 우체국이 점점 디지털화로 동네에서 사라지고, 한 끼 기니를 때우던 간편식 음식점은 다 키오스크 주문체제로 바뀌어 그나마 이용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디지털로 만나고 일하고 소통하는 일은 노인들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재난 속의 노인

코로나 재난으로도 확인되고 있지만 재난 속에서 노인들은 그 누구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또 재난 후에 삶을 복구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는 과정 또한 훨씬 어렵다.

재난이 발생하면 노인들은 신체적 활동성이나 인지능력, 감각이 떨어지게 때문에 쉽사리 대피하거나 안전활동을 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사회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하거나 대피할 여러가지 물리적 수단을 확보하기란 더욱 어렵다. 더군다나 대피 상황이나 지원 등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보에 접근하는 일이 쉽지 않다. 디지털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재난 정보를 재빨리 수신하여 대응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 2005년 미국의 태풍 카트리나로 인한 인명 피해자 중 70%가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흑인 여성 노인의 피해가 컸다. 우리 나라에서도 홍수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은 산간지역에 혼자 살고 있던 노인들이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며 더욱 잦아지는 폭염 피해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폭염이 극심하던 2018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65살 이상 인구 29만6천 명이 더위에 지쳐 숨졌다고 한다. 영국의 의학저널 <랜싯>의 ‘2020년 기후변화 보고서’ 또한 2000~2004년과 비교할 때 2014~2018년의 기후위기로 사망한 65살 이상의 고령자가 53.7%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폭염으로 인한 고령 사망자는 2000년 전세계적으로 15만 명 수준이었는데, 2010년 25

만 명을 넘어선것고 8년 만에 30만 명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 소방재난 본부의 폭염 피해 구급활동 자료를 보면 61세 이상이 5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쪽방촌과 같이 에어컨도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사는 노인들이 그나마 갈 수 있던 ‘폭염 쉼터’ 또한 코로나 속에서도 운영되는 곳이 있었지만 그나마 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노인들은 외롭게 폭염 속에 쓰러질 수밖에 없던 것이다.

기후위기와 초고령화 사회라는 과제

기후위기 상황이 너무나 엄중한 상황이지만, 영화 <돈 룩 업 (Don't look Up)>에서 보듯이 재앙이 코앞으로 닥치기 전까지는 모두가 심각한 위기를 실감하지 못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할 절대절명의 과제이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을 최상의 가치로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속에는 저만치 제쳐둔 정책이 되고 있다. 곧 다가올 2025년이면 이제 인구의 20%가 65세의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되지만 그 사회에 대한 비전은 여전히 경제성장 동력의 하강이라는 우려와 함께 ‘출산 장려’ 담론 속에 가려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43.4%로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후위기 현실은 점점 심화될 것이고, 초고령화 사회로 치달아가는 속도 또한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은 그다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상황을 통해 우리는 이미 노인들(그중에서도 여성 노인)이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높은 노인빈곤율,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들 속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우리사회는 어떻게 이 엄중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실로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K-좀비물’의 유행과 구원에 대한 질문

| 김선영

문화평론가, 좋은미디어콘텐츠 심사위원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신드롬을 주도하는 넷플릭스코리아가 2022년 새해 공개한 첫 오리지널 시리즈는 좀비물이었다. 12부작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은 경기도의 한 외곽 지역에 위치한 가상의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좀비 재난극을 그린다. 원작은 2009년 첫 발표된 주동근 작가의 동명 웹툰으로, 연재될 때만 해도 국내에서는 아직 좀비물이 대중화되지 않은 시기여서 모르는 이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좀비 영화와 드라마는 이른바 ‘K-좀비물’로 불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시청 순위 전 세계 1위를 차지하자 이 같은 관심은 한층 거세졌다. 이 작품은 현재도 넷플릭스 주간 차트에서 4주 연속 세계 1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십여 년 사이, K-좀비물은 어떻게 글로벌 대세가 되었을까. 이에 대한 답의 실마리는 그 열풍을 주도한 두 작품, 영화 <부산행>(2016)과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2019)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품들이 좀비 장르에 익숙할 대로 익숙해진 서구인들의 눈길까지 사로잡은 핵심 요인은 첫째, 신선한 설정과 둘째, 사회비판적 메시지다. 먼저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부산행>은 부산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좀비 재난극으로, 중심 배경이 된 KTX 공간의 특성을 영리하게 잘 활용했다. 열차의 속도감과 밀폐감에서 오는 공포와 불안의 정서를 잘 살렸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 특유의 앞만 보고 빠르게 달리는 성과지상주의의 삶을 적절하게 풍자해 호평을 얻어냈다. 사회파 스릴러물의 거장 김은희 작가가 극본을 맡은 <킹덤> 역시 좀비 아포칼립스의 배경을 조선시대로 옮긴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

다. 두 차례의 전란과 대기근으로 나라 전체가 굶주리는 상황이 좀비 아포칼립스의 황폐함과 잘 맞아떨어졌고, 험벗은 백성들의 고혈을 무자비하게 빨아먹는 관리들의 탐욕을 은유하는 비판적 메시지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연상호 감독과 김은희 작가는 전작의 호평 요인을 후속작에서도 이어가며 K-좀비물 열풍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간다. <부산행>의 후속작 <반도>는 속도전에서 제일 먼저 뒤쳐지는 존재이자 재난 취약층이기도 한 노인, 어린이 같은 약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한다.

K-좀비물의 호평 요인은 이후 등장한 작품들에도 그대로 계승된다. 한국의 획일화된 주거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좀비극 안에 청년층의 소외의식을 녹여낸 영화 <살아있다>(2020), 일반분양자와 임대주택주민으로 나뉜 신축 아파트를 배경으로 계급 간 차별을 좀비 재난극의 주요 갈등 구도로 삼은 tvN 드라마 <해피니스>(2021) 등이 대표적이다. 두 작품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격리와 단절의 모티브까지 반영되어 사회 변화에 민감한 K-좀비물의 특징을 한층 부각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공개된 <지금 우리 학교는>은 K-좀비물 열풍의 최전선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주요 배경으로 택한 이 작품은 입시 경쟁, 학업 스트레스, 학원 폭력,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청소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좀비 학원물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개척했다. 극 중에 표현된 좀비 바이러스의 기원부터가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바이러스의 유래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던 원작과 달리, 드라마에서는 그 기원이 학교 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묘사해 학원물 고유의 주제 의식을 강화했



다. 첫 회부터 십대 후반 가량의 소년이 또래 일진 학생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정신 없이 두들겨 맞던 아이는 어느 순간 기괴한 반응을 보인다. 눈은 붉게 충혈되고 입에서는 짐승의 소리가 흘러나온다. 괴물 같은 표정을 짓던 아이는 다시 고개를 휘젓고 평범한 얼굴로 되돌아오더니 곧 건물 아래로 추락한다. 아이의 이름은 진수(이민구), 효산고 과학 교사 이병찬(김병철)의 아들이었다.

좀비학원물, 청소년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반영한 사회적 재난


한때 천재 과학자로 불렸던 이병찬은 일진들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는 아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그의 분노를 끌어내 강한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요나스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바이러스를 주입 당한 진수는 점점 강한 분노와 공격성에 사로잡혀 괴물처럼 바뀌어가는 자신을 두려워했다. 이병찬은 아들을 계속해서 관찰하며 그의 목표를 이루려 했지만, 모든 재난극이 그러하듯 계획은 인간의 의지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과학실을 청소하던 한 학생으로 인해 유출된 요나스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학교를 넘어 시 전체에 확산되고, 이내 사람들 몸속에서 번이하고 진화하면서 세상을 까마득한 혼란으로 몰아넣는다.

도입부부터 이것이 판타지적 재난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임을 강조한 <지금 우리 학교는>은 이후 전개에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이어간다. 고등학교에서의 재난은 청소년들의 열악한 인권으로 인해 급속도로 악화된다. 학생들을 통제

하기 위해 아침마다 휴대폰을 모두 수거하는 강압적 규칙은 비상시 재난 신고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가까스로 휴대폰 하나를 손에 넣은 학생이 구조대에 신고를 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커녕 애들 장난으로 무시당한다. 학교에 고립된 생존 학생들이 구조를 기다리다가 서서히 지쳐가는 장면은 더 안타깝다. 학생들 가운데 제일 이성적인 반장 남라(조이현)는 ‘우리나라에서 학생은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 순위에서도 밀릴 것’이라 말한다. 남라의 말을 증명하듯 학교 바깥에서는 재난대책본부가 시의원을 먼저 구출하는 장면이 병행 편집으로 등장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어나는 구원의 희망

그럼에도 <지금 우리 학교는>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어나는 구원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아이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약한 힘이나마 서로 합쳐서 살아남고자 한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학생들도 나오지만, 아이들은 혼자 살아남으려 애쓰지 않고 어깨를 부축하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남자고 다짐한다. 좀비에 물려 삶의 가망이 사라진 아이들이 인간성을 완전히 잃기 전에 친구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그대로 희망이 되어, 남은 아이들이 바닥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숭고한 희생을 치른 아이들 역시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 언제까지고 살아남는다. 그토록 기다리던 구조대는 오지 않았으나, 그들은 서로를 구원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K-좀비물의 디스토피아 서사는 늘 역설적으로 희망의 가치를 부각하는 서사로 마무리된다. <부산행>에서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보호 속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엄마 뱃속 아이를 비추는 구조의 빛에서부터,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폐허가 된 학교 옥상 위에 피어난 모닥불까지. 완전한 어둠을 통과한 뒤의 빛은 더 따스하게 살아남은 이들을 비춘다. 요컨대 동시대에 대한 예리한 인식이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투영한 재난 서사를 구축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미래의 구원을 찾아가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K-좀비물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다. 

커뮤니티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김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주)로컬프렌들리 대표

YWCA청년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로컬프렌들리(Local Friendly)는 초기교회공동체 교제(행2:46)와 YWCA의 지역운동, 청년성에 기반을 둔 회사로 현대(Hospitality)와 휴먼터치(Human Touch)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의 커뮤니티를 디자인한다. 현재 군산 구(舊)도심에서 '커뮤니티호텔'과 우리술 보틀샵 '술 읽는 상점'을 운영하며 외지인이 군산을 여행처럼 살길 바라고, 지역민들이 계속 살고 싶은 군산이 되길 꿈꾸며 커뮤니티를 기획한다. 2022년에는 YWCA 100주년을 맞이하여 YWCA가 100년간 지녀온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비즈니스화시키고, 지역과 청년의 지속가능함을 위한 고민의 여정이 올해에도 격월간 <한국YWCA>를 통해 연재된다.

공동체 붕괴와 관계단절의 경험

지역(마을)이라는 곳에서 커뮤니티, 즉 공동체는 어떤 의미일까? 짧게 내 개인의 경험을 나누자면 2012년 대학교 재학시절, '대학YMCA전국연맹' 회장이었던 나는 YMCA청년들과 한국전력의 765kV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밀양 할매*들과 함께 했다. 밀양송전탑 사건이 가져온 여러 결과 중 가장 참담했던 것은 '공동체 붕괴'였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주민들의 생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마을 내 인간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주민들이 '재산권', '건강권'과 함께 '공동체 파괴 복원' 주장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만큼 지역의 공동체는 재산과 건강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 공동체가 자멸하여 공사가 강행될 수 있도록 일부러 공동체 균열부터 노렸던 것인지 의심마저 들었다. 이웃사촌이라 여겼던 관계가 단절됐고, 마을이 공동체가 무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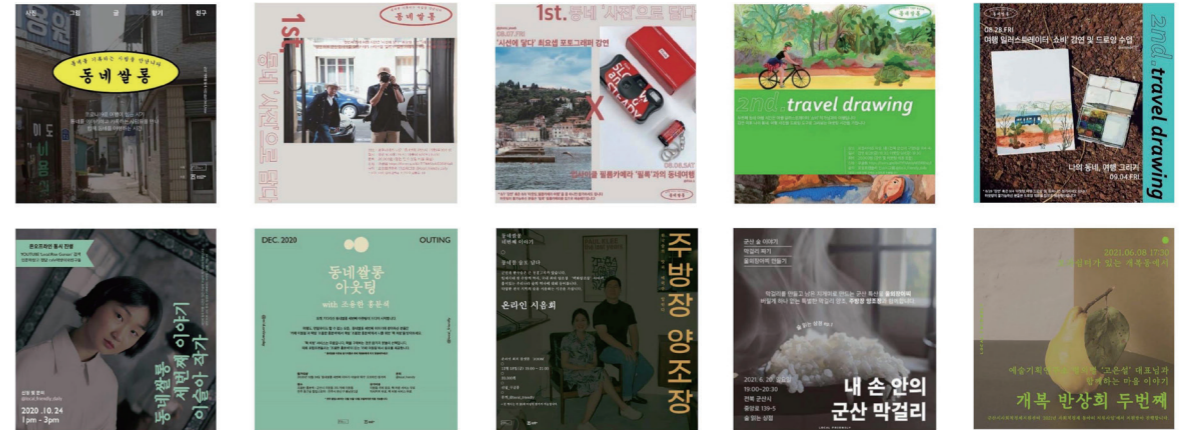
왜 '커뮤니티'인가?

'로컬프렌들리'는 YWCA라는 시민단체가 100년간 지녀온 사회적 가치를 비즈니스화시키고, 지역의 지속가능함에 대해 고민하며 창업에 도전했다. 창업 아이템은 '커뮤니티'였고, 초기교회공동체의 교제(행2:46)를 모토로 삼았다. 하나님나라는 '공동체(Community)'이며 YWCA가 해야 할



최근에 완성한 커뮤니티호텔 후즈넥스트 소개 카드뉴스

- 1) '밀양 할매'는 10년 넘게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을 벌인 주민들을 상징하는 말로, 당시 우리에게 친숙하고 푸근한 애칭과도 같았다.
- 2)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진상조사 보고서'까지 발간했다.



로컬프렌들리가 처음으로 기획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동네살롱' 포스터들

하나님나라운동의 핵심을 하나님나라 공동체의 경험을 확산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나님나라 공동체는 함께 먹고, 자고, 즐기는 밥상공동체, 식탁공동체 즉 생활공동체다. 성찬식(Communion)이 같은 어원에서 유래됐다. '식구', '회사'의 어원³⁾만 봐도 함께 먹고 사는 행위는 중요하다. 이러한 식구공동체, 생활공동체는 이미 지역에서, 마을에서 계속 이어져온 중요한 가치이지만, 점점 잃어가고 있다. 하나님나라 공동체로의 회복이 지역은 필요하다. 지역만이 아니다. 점점 '한끼 떼우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즐기는 경험은 중요하다, 즉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인에게도 이러한 커뮤니티 속해보는 경험을 줌으로써 마음의 고향이 되어준다. 지역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지역 안팎으로 커뮤니티 멤버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곧 지역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라 믿었다.

커뮤니티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아직까지는 확신있게 'YES'라 답하지 못한다.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지역청년 이탈 등의 지역 문제는 청년창업가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로컬프렌들리가 커뮤니티의 가치를 믿고 달려온 3년은 앞으로 가야할 길의 이정표가 되고 희망이 되어준다. 커뮤니티 단절이 가져오는 아픔

이 실제로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관계의 단절과 소외 문제, 외로움이 고독사라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커뮤니티의 파괴가 곧 마을과 지역의 붕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로컬프렌들리가 커뮤니티로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군산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재밌게 모여 살고, 그 지역민 커뮤니티의 무드와 매력에 반한 외지인들이 군산을 찾고, 계속해서 군산에 올 수 있도록 즐거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이 어렵지만, 커뮤니티에 속해본 경험으로 관계인구⁴⁾를 늘려간다.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각종 인프라를 구축시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며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재밌게',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크루를 이룰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기획한다.

세상을 변화시킬 움직임

100주년을 맞이하여 YWCA 100개의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한명 한명이 모여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것이 지역 변화의 첫걸음이 되었던 것 처럼 한개 두개 프로젝트가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큰 움직임이 되길 희망한다. 2022년에도 로컬프렌들리는 달린다. 한 명의 관계 주민을 늘리고, 한명의 크루원을 모집하기 위해.

- 3) '식구(食口)'는 한술밥을 먹는 식사공동체를 뜻하고, '회사(Company)'는 '함께'라는 뜻의 'Com'과 라틴어인 빵의 'Pan' 합성어
- 4) '타지에서 이주해온 정착인구'도 아니고 관광 등 '교류인구'도 아닌, 단기 체류나 자원봉사 활동, 정기적인 방문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특정 지역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인구를 말한다.

비영리법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언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민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법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에 따른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반해 회사처럼 영리법인의 경우는 준칙주의에 따른다고 한다. 준칙주의는 법인설립에 관한 틀을 미리 정해놓고 그 틀만 갖추면 설립이 인정되는 것이다. 준칙주의보다 허가주의가 법인설립이 더 어렵다.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가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재단 설립의 경우 기본재산이 얼마정도야 하는지도 제각각이다. 설립 단계만이 아니고 운영단계에서도 기본재산 변경, 정관변경 등의 경우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세제혜택도 주어지고, 기부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비영리법인은 돈을 벌어도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것은 법인세를 안내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고유사업목적준비금이라고 쌓아둔다면 사실상 법인세를 당장 안내도 된다.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물론 세금혜택을 받거나 나중에 추징을 안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

설립도 조직변경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족쇄 풀어야

비영리법인을 통해 여러 사회의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움직임을 법이 막아서는 안 된다. 어떠한 공익활동을 하려할 때 법인을 꼭 설립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운영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혜택도 주고 싶고 제대

로 활동을 하고 싶은 경우 법인의 모습을 갖추고 싶은데 현행 법제도와 이를 해석하는 주무관청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적극적으로 현행 법제도를 바꾸는 것을 고려할 때이다. 몇몇 사람과 법인의 기부나 법인 운영의 일탈 때문에 투명성 강화, 협력의무 강화, 가산세 가중 등으로 운영을 잘 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만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의 대물림 양상이 주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식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 전쟁을 겪은 이후 전반적으로 새로운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고, 30년을 1세대로 본다면 2세대가 지나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이 1960년에 133만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523만원에 이른다. 소득격차 및 자산격차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지만, 개인의 소득과 자산의 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이를 자녀 이외에 사회에 환원하려는 동기가 높아지고 있다면 종전 국가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운영하려는 법제도에 혁신을 줄 필요가 있다. 자기 자산을 종전 비영리법인에 기부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좀 더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설립을 허가주의가 아닌 준칙주의로 전환을 하는 것도, 합병과 분할 등 비영리법인의 구조조정도 주위 환경변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이다.

비영리법정도 시혜적인 것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

종전 비영리법인은 좋은 일을 하는 곳이므로 법제도를

좀 몰라서 어겨도 봐주어야 하고,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분들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회사보다 적은 보수를 감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비영리섹터에서 하는 일이 천사의 비즈니스라고 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법제도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등한시한다면 여론이나 국회의 힘을 통해 실제로 법제도가 바뀌는 시도를 하기 어렵다.


주식기부에 대해 2017년 4월 20일에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한 경우가 있었다. 수원교차로사건(구원장학재단 사건)으로 불리며 비영리섹터만이 아니고 조세관련 학계에도 반향을 일으켰던 판례이다.

고 황필상님 등이 2003년 구원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하였는데, 비영리법인의 주식 5% 초과제한 위반으로 2008년 증여세 140억원이 과세되고 나중에 체납이 되면서 225억원으로 불어났다. 2010년 1심에서는 납세의 무자가 승소했다가, 2011년 2심에는 패소, 2017년 대법원에서는 승소(원심파기환송)하였다. 이후 2017년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납세의무자가 이겼음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2008년 증여세가 과세되고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기간 동안 법을 만든 곳과 이를 집행하는 국세청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다. 해당 제도개선에 대한 세미나에서 필자도 과세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토론자로 함께 나온 고 황필상님도 억울함을 토로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주식 5% 초과제한에 대한 기본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기부를 하는 방법을 고려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억울함을 법이 바뀌면서 일부 해소해 주고는 있지만, 비영리법인 설립의 준칙주의로 전환이나 합병 및 분할 등을 자유로이 허용하는 법 개정을 하려면 비영리법인이 좋은 일 하는 곳인데 불편을 느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영리법인 스스로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진짜 문제되는 것을 확실히 짚어야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비영리법정도 근무자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기왕에 있는 법제도를 비영리법인 스스로 지키려면 비영리법인의 근무자 역량도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좋은 일을 하는 곳이고 따라서 근무자도 낮은 보수를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기빙코리아2021>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설문문을 통해 파악한 비영리조직의 상용근로자의 평균연봉이 3,643만원이고, 임시근로자는 3,299만원이라고 한다. 더욱이 응답자의 63.3%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연봉 4천만원~5천만원 사이라고 응답한 설문대상자들 112명 중 77명이 이직 의향이 있다고 응답(68.8%)하였는데, 이는 3천만원~4천만원 집단의 62%의 이직 의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비영리법인 근무자들이 이직을 많이 생각하는 현실, 평균연봉보다 높은 근무자의 이직의향이 높다는 것은 비영리법인 스스로 인사관리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비영리법인만의 노력만이 아니라 기부자의 생각도 바뀔 필요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기부자를 대신하거나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하는 곳이고 결국 비영리법인의 근무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쓰는 것을 기부 받은 것을 마치 크게 잘못 쓰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소중한 기부자의 돈을 허투루 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부자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기부를 빌미로 사기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형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비영리법인 종사자의 전문성과 헌신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자체 인력으로 이미 있는 법제도를 파악하고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체 인력이나 외부전문가 도움 모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역력이 있는 큰 비영리법인이 나서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부자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확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YWCA 100년 청소년과 함께, 변화를 향해

2022년 Y-틴 전국협의회

천유란

(사)한국YWCA연합회 팀장



YWCA와 청소년

YWCA에 청소년은 어떤 의미인가? 한국YWCA 8만 회원 중 무려 3천 여명의 회원이 청소년이다. 100년 전 한국사회의 아픔을 바라보며 한국에 YWCA를 설립한 이들도 젊은 여성이었다. 역사적으로 YWCA 청소년들은 주제로 서서 활동해왔다.

2022년은 YWCA와 한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해다. 한국YWCA는 청년정신 회복을 선포하며 법인이사회 내 35세 이하의 청년 수를 확대하고 청년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YWCA 청(소)년운동을 위해 운영 정책을 바꾸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운동정책 중 주요한 목표로 '청(소)년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당사자 운동 강화'로 결정했다. 본격적인 청소년운동 시작을 위한 YWCA 청소년들의 총회, Y-틴 전국협의회가 온라인에서 열렸다.

Y-틴 전국협의회

2022년 1월 7일(금) 오후 1시, 55명의 Y-틴과 지역 실무활동가들이 총회에 참석했다. Y-틴 전국협의회는 청소년 회원

이 의결권을 갖고 자신들의 운동을 결정하고 임원을 선출한다. 청소년들은 단순한 피교육자가 아닌 YWCA 회원으로서 당사자 운동을 전개할 기초를 세운다. 청소년 운영, 활동 정책이 미리 정해져 있는 다른 청소년 단체와 달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청소년 운동 정책과 방향을 결정한다. 2022년도에는 작년 이어 '기후위기'가 운동 정책으로 선정되었고, 대전Y 이선우 회원이 2022년 Y-틴 전국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운동 주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자료를 준비하였다. 또한 2021년 활동을 돌아보며 지역별 청소년 지역별 청소년 기후위기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중점운동: 기후위기

Y-틴은 한국YWCA에서 전개하고 있는 탈핵운동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위한 행동들을 접해왔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생명감수성을 갖게 될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 기후위기가 개인과 상관없는 먼 지구의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우리지역, 나

의 위기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지구와 상생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이후 더 많은 재앙과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첫 번째 세대이다. 이미 2021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안들이 있었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한 지역 사회 지지를 받는 환경운동, 지구를 위한 불편한 실천운동 등을 전개했다. 2022년에는 전개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의제 활동, 정책 활동까지 확장하여 실제적인 당사자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리는 청소년이다

Y-틴은 한국YWCA 100년의 역사를 가슴으로 받아 다음 걸음을 힘차게 걸어 갈 것이다. 그 모든 과정에서 청소년은 다른 회원들과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자기결정과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주어진 상황과 위치 속에서 수동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한국 사회에 당면한 문제를 발견해 내고 변화를 일궈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100년 전 YWCA 한국 사회에 존립했던 이유와 오늘날 YWCA 청소년들이 존재가 맞닿아 한국 사회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리길 희망한다.

2022년 Y-틴 전국협의회 회장 인사말



이선우
(사)한국YWCA연합회
Y-틴 전국협의회 회장

안녕하세요. 2022년 한국YWCA Y-틴 전국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선우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자리에 모두 함께 만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만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총회를 할 수 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YWCA라는 단체를 엄마를 통해 초등학교 때부터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Y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YWCA를 생각하면 단순히 무언가 활동을 하는 딱딱한 단체가 아닌 청소년, 성평등, 환경 등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때부터 역사적으로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깊고 의미있는 단체인 YWCA의 청소년대표로 활동할 수 있음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청소년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회원들을 모집하는 것도 어렵고 만나서 하는 활동도 위축되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재미있는 활동을 하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YWCA의 매력은 이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친해지고 삶의 일부가 되어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느낀 장점을 다른 친구들과 잘 나누며 활동하고 싶습니다. 옛날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YWCA가 해왔던 것처럼, Y-틴에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며 실천하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때,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더욱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주신 만큼 친구들과 더욱 즐거운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WCA의 100년, 청년의 100년

이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2022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총회 개최

2022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총회가 1월 15일 개최됐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우려로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됐다. 13개 회원YWCA(광주, 대구, 대전, 마산, 목포, 부산, 서울, 세종, 수원, 안양, 울산, 인천, 전주) 정대표 23명과 방청대표 7명, 연합회 실무자 2명과 회원YWCA 실무자 14명까지 총 46명이 참가했다. 2021년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서다미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총회가 시작됐다.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에 참석한 청년들을 구정혜 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가 인사로 반겨주었다. 구정혜 상임이사는 청년이 주축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청년의 YWCA가 되기를 희망하며 청년회원의 주체적인 활동을 응원했다.

2020년 대학·청년YWCA총회를 시작으로 3번째 진행되는 온라인 총회인 만큼, 참가자들의 온라인 회의에 접속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온라인 총회는 의장의 음성과 채팅으로 식순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안건별 투표는 구글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투표 결과는 미리 설정한 종료 시각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었다.

2022년 임원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정견발표 후 진행되는 투표를 통해서 2022년 임원이 선

출되었다. 전국협의회장은 서다미(전주YWCA), 기획국장은 이예림(안양YWCA), 소통국장은 김현진(대구YWCA) 회원으로 지난 2021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임원진이 그대로 연임하게 되었다. 선출된 임원들은 임원으로서의 다짐을 발표하며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YWCA 100주년의 청년과 청년 법인이사


서다미 회장은 2022년의 임원단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청년들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청년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YWCA가 100주년을 맞은 만큼, 함께 축하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Y의 미래를 내다보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예림 기획국장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협의회는 임원구조와 회의체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체제의 안정에 집중해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현진 소통국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참여성과 적극성을 많이 잃고 위축되었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줄 수 있는 바람이 되어 회원Y의 청년들이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에 대한 연대감을 높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022년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총회는,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역사 속에서 논의된 적 없던 새로운 안건이 논의되었다. 바로 <(사)한국YWCA연합회 청년이사 후보 추천의 건>이었다. 한국YWCA연합회의 구조개편 이후, 법인이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는 청년이사 4인을 법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총회가 시작되기 전, 연합회 이수진 간사가 한국YWCA연합회의 의사결정구조 변경의 과정과 함께 청년이사의 필요성 및 공천규정에 대해 강의하였다. 한국YWCA의 의사결정구조 속 청년의 비율이 높아지는 역사적인 변화인 만큼, 대학·청년Y 회원들은 어느 순간보다도 강의에 집중하였다. 추후 전국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회원Y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자료에 대한 공유 요청도 있었다. 청년 법인이사에 대한 강연을 통해, 청년 법인이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총회에서는 청년법인이사 후보들의 신청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 뒤, 투표를 통해 청년 법인이사 후보 4인을 추천하였다. 대전Y 조은지, 서울Y 김예지, 수원Y 최선화, 전주Y 서다미청년이 2022-2023년 (사)한국YWCA연합회 청년 법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다. 대학·청년YWCA의 청년들은 한국YWCA의 큰 변화 속에서 청년 법인이사라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청년이사 후보들에게 화면으로나마 큰 박수로 응원을 보냈다.

이번 총회에 참가한 청년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청년들의 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지금, YWCA 100년의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선배청년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에 현재의 우리가 남길 발자국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청년YWCA 내실화의 완성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YWCA의 100년, 청년의 100년”이 전국운동주제로 채택되었다. 이번 총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것이 능숙한 MZ세대의 특징이 나타났던 행사였다. 한 자리에 모여 함께하지 못했지만 청년회원들의 빛나는 눈동자들이 모여 반짝이는 총회였다. 

2022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회장 인사말



| 서다미

(사)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회장
한국YWCA 100주년준비단 공동위원장
2022~2023 (사)한국YWCA연합회 청년이사

안녕하세요. 2022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회장 서다미입니다. 저는 2021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대학·청년Y 전국조직에 힘을 불어넣기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2022년에는 작년의 움직임들을 바탕으로 대학·청년Y 전국조직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 번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YWCA의 구조개편 이후 첫 법인이사회가 출범하였고, 청년회원들이 의사결정구조 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가 주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YWCA의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도를 이끌고, 그들을 지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라는 회의체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중심을 지키는 회장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2021년에 변경된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회의체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모든 청년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2022년의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는 청년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전국협의회 임원단이 직접 듣고, 그들과 함께 기획해 나감으로써 청년활동의 주체성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YWCA연합회의 100주년을 맞이한 만큼, 100년을 함께 축하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청년들이 함께 YWCA의 미래를 내다보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회원들이 YWCA의 100주년을 넘어 YWCA의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YWCA는 YWCA만의 청년운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청년을 지지하는 것, 청년들이 직면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대로 주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세 가지의 특징은 YWCA만의 청년운동을 전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청년운동의 선배님들과 함께 하며 후배세대의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은 YWCA만의 청년운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2년은 한국YWCA에게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100년을 기념하며, 앞으로의 100년을 그려보는 때입니다. 1922년에 김필레, 김활란, 유각경 세 분의 청년들이 처음 모였을 때의 정신을 이어받아 청년을 위한 즐거운 활동들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판을 바꿔야 한다 : 지방선거 기후위기 운동방향과 과제

| 유에스더

(사)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간사

한국YWCA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지속해오던 생명운동의 연장선에서 100주년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적인 운동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회원YWCA RE100운동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자 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지난 1월 11일(화) 오후 2시에 43개 회원Y와 연합회 실행위원 및 실무자를 포함, 당일 총 90명이 참석하여 한국YWCA 탈핵기후생명TF 전문위원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의 강의를 듣고 권역별 토론을 이어 나갔다.

2018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며

2017년 탈핵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나온 탈원전 로드맵은 신고리 5, 6호기를 마지막으로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화된 원전은 수명 내에 가동 중지하는 것이 골자였다. 사실상 탈원전은 2080년이나 이뤄지는 것으로 상당히 느린 속도의 로드맵이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3020 재생에너지 계획 역시 지자체의 인력난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로 진척이 더뎠다.

최근 2-3년 사이에 태양광 폐기물 여론이 형성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중적인 반감이 생겨났다. 그러나 처리방안이 없는 핵 폐기물에 비해 태양광 폐기물은 폐널과 철근이므로 오히려 처리가 쉽다. 또한, 한국보다 30년 먼저 태양광을 시작한 유럽의 경우 태양광 폐기물 처리장 및 재활용 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고, 우리의 경우에도 충북 진천에 태양

광 처리장이 있다.

2022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간이 흐르면서 국면은 여러모로 변했다. 그 배경에는 국제적인 탄소중립 이슈가 있었다. 전세계 에너지의 80%를 충당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137개 국가가 없애고, 대기 중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전무후무한 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한 진지한 실행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보면 전력이 가장 크다. 탈원전과 탈석탄이 함께 가려면 에너지 소비가 줄고 빠르게 재생에너지가 늘어야 하는데, 현재 전기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소비는 줄지 않고 태양광은 비싸고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에 봉착해 있다.

2022 지방선거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무엇보다 규모 있는 시민 RE100운동이 필요하다. 태양광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야 하고, 지자체가 RE100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탄소중립지원센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등이 세워져야 한다. 결국 자본이 필요하므로, 탄소인지예산제도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을 지자체별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기후대응기금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밖에 없고, 최근 전라남도도 기후대응기금을 마련

할 조례를 만들었다. 또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정책결정과 심의 단위에 여성과 청년들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속도와 방향,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얼마 남지 않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빠르게 전환하되, 지금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하여 갈등을 늘리지 않도록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데 있어 또다시 지역에 에너지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주는 것, 태양광으로 가는 인력과 예산, 정책을 갖추도록 대도시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주변의 부지나 산업단지의 지붕과 같은 활용 가능한 부지들을 찾아내서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들을 이슈화 시켜야 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도의원의 그룹들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정책이 바뀌도록 판을 바꿔내야 하는 것이다. 

권역별 정책의제 활동방향방안 토론편모음

- 강원-경기남부-서울**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지자체 탄소중립 주력과 신설 요청. 기후위기현장 및 협약으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전개. 지역별 연대 통한 적극적 참여 및 활동 지속.
- 경기북부** 시정모니터링 진행 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청. 경기도 및 연대단체와 협력하여 캠페인 진행.
- 충남-충북-대전** 구체적 탄소중립로드맵과 기후정책 전담부서 설치 요구. 인구대비 태양광 10%설치 및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마련 제안. 각 후보들에게 탄소중립 선언요구하고 시민의견 조사 진행.
- 경상-대구-울산-부산** 탄소중립 시민교육 의무화. 제로웨이스트 지원 및 채식 정책 제안. 기후위기 정책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공청회 마련 요청. 대기업 행동 대책 반영한 환경드림시티 조성.
- 경남** 지자체 탄소중립 담당정책관 요청. 지선 후보들에게 묻다 간담회 장마련. 지선후보자들에게 공약제시 후 매년 공약 이행을 점검 및 촉구. 회원 교육 및 시민 교육 위한 영상 및 자료 제작. 실천적 시민운동 전개.
- 전북-광주** 미세먼지, 악취문제 등에 대해 주무부처와 시에 제안. 시민 대상 스터디 및 탈핵캠페인 진행.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양성과정과 컨설팅 지원사업 확대.
- 전남-제주** 탄소중립위원회 등에 청년, 여성 참여 비율 상향조정 요청. 학교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생태전환교육필수 이행 권고. 기후대응기금 마련 제안. 환경교통영향평가 강화 요청. 연대단체와 지방선거 토론회 진행 및 현 지자체장의 공약이행 모니터링 결과공유. 환경요염 이슈 제기 및 화력발전설치 반대 운동 전개.


신한울 3·4호기 핵발전소 백지화하라!

| 변남순 (사)수원YWCA 팀장

1월 19일 수원YWCA는 함박눈을 맞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수원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핵발전소 백지화 촉구 동시다발 전국행동'을 진행했다. 몇몇 20대 대선 후보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 림에도 불구하고 탈핵기후생명이라는 YWCA의 기후위기 운동 방향과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과제는 변하지 않는다.

지난해 지자체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맞춰 '수원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 의정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역 특성상 수송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따른 인구 밀도와 에너지 사용량, 주거, 경제 등을 반영한 탄소중립 추진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수원YWCA는 내부적으로는 중점운동별 정책 제안을 취합

해 경기도, 수원시 등에 제안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수원 시민사회단체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와 함께 시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드는 기획경제, 도시환경, 문화체육교육, 복지안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6월 지방선거 전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 없는 도시계획은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고, 도시의 재편과정에서 약자와 소수자 안전, 권리문제 역시 다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수원시 환경보전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통합 작성되는 과정을 기후운동으로 접근하고자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를 새롭게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수원YWCA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기대하며 이 모든 활동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언제나 같이 갈 것이다. 

“우리는 미얀마의 정의가 회복되는 날까지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 이한빛

(사)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간사

작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시민들은 이에 저항하며 길거리로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군부의 탄압은 시민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불의에 저항하며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1년

작년 한 해 동안 군부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소 1459명입니다. 이들 중에는 행인과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소 11461명 이상의 사람들이 군부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들은 고문과 배고픔, 질병으로 갖은 고초를 겪고 있으며,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에게 코로나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군

부는 의료지원을 인질 삼아 시민들을 협박했고, 대면이 어려워지자 시위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는 감염자의 급증과 의료 시설의 부족으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했으나, 다행히 연말까지 점차 감염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2022년 2월 23일 기준) 한국의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약 0.3%인데 비해 미얀마는 10배 정도인 약 3.3%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파악되지 않은 코로나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말에는 미얀마 중부에서 군인들이 수십 개의 마을과 시민들에게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대가 공해상의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양곤과 중부 및 동부 지역에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반정부 인사들이 피신한 중부 지역과 카렌 주에서는 무장 대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은 계속해서 침묵시위와 불복종 시위를 이어갔으며, 세계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습

니다. 시민들은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구성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군부에 저항하기 위한 조직을 갖춰갔습니다. UN에 국민통합정부를 미얀마의 대표로 인정하라는 요구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일상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군부 통치와 안정적이지 않은 정치적 상황으로 미얀마의 물가는 폭등했고, 한 해 동안 농사 및 생산활동이 거의 멈추었기 때문에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한 한국YWCA의 1년

한국YWCA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직후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아시아 지역 YWCA에게도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YWCA는 미얀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회원YWCA와 회원, 시민들의 동참으로 모금이 이루어졌고, 현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YWCA의 미얀마 지원은 세 곳, 미얀마YWCA, 버마 플랫폼,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행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모금 캠페인을 계획할 때는 미얀마YWCA를 통해 모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나, 군부 정권이 시민단체들을 감시하고 관련 인사들을 구금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미얀마 지원이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YWCA를 통해서도 코로나19 긴급 물품 지원만 이루어졌으며, 이후 이러한 필요에 동감하는 국내외 에큐메니칼 기관 및 단체들이 모여 ‘버마 플랫폼’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버마 플랫폼을 통해서도 미얀마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대응하는 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의약품 및 의료 지원, 식량 지원, 교육 지원, 트라우마 상담 치료 등 다면적인 지원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현지 활동가들의 안전을 위해 보안 상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모금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민주 가치를 바탕


으로 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 지원을 받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이지만 식량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소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YWCA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행동을 통해 한국 사회 안에서의 미얀마 지지를 위한 연대를 다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민주정부를 UN 대표로 인정해달라는 엽서 캠페인, 미얀마의 쿠데타를 방관하지 말라는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기도회,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 1주년 추모 기도회를 통해서도 미얀마 시민들의 안녕과 미얀마의 정의와 평화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미얀마 땅에 기쁜 소식이 하루 속히 선포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한국YWCA의 자리

한국YWCA가 향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입니다.(한국YWCA 목적)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연대와 운동은 그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에큐메니칼(ecumenical)의 어원인 오이쿠메네(oikoumene)는 사람이 살고 있는 온 누리를 뜻합니다. 에큐메니칼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YWCA의 운동은 온 누리를 향합니다. 그 누구의 고통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미얀마의 고통이 우리의 슬픔이 되었고 정의와 평화의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한 해 동안 회원YWCA, 회원, 시민, 활동가들이 지켜준 ‘이웃’의 자리 덕분에, 한국YWCA 목적이 실현되었습니다.

올해는 미얀마에 더 극심한 식량난이 예상되며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미얀마의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YWCA는 성명서의 고백처럼 미얀마의 정의가 회복되는 날까지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좁고 먼 길, 이웃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한국YWCA 미얀마 지지 활동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토론회 개최



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2022년 1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YWCA와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시민, 쿠키뉴스가 공동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장에는 주최·주관 측 대표자와 발제와 토론의 순서를 맡은 이들로만 제한하여 참석하였고, 생중계된 쿠키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100여 명이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비영리·공익법인은 국가의 역할이 세심하게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법에서 고수하고 있는 허가주의와 주무관청에 따라 상이한 허가요건 등은 법인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동안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YWCA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YWCA의 지역법인화를 소개하며 “현실과 거리가 먼 법제도상의 문제를 절감하고 있으며, 현행법상으로는 100년 동안 활동해온 지역 YWCA가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해산을 하고 다시 법인을 설립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밝히며, YWCA 지역법인화 과정에서 마주한 실제적인 어려움을 강조했다. 또한 원영희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YWCA 뿐만 아니라 공익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힘쓰는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는 “시민단체는 정부도 언론도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등불과 같다. 토론회에서 현실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비영리법인 설립과 조직변경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행 민법 개정 필요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채택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법인 설립 허가주의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포기하는 비법인 단체가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재 독일과 일본 등 해외 대부분 국가들에서는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준칙주의를 시행 중에 있음을 짚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4년에 법인 설립을 인가주의로 바꾸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 때문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기에, “우선 이견이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 인가주의와 관련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고 그 외 개정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 안으로 추진해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로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상법과 특별법에서는 회사나 특수법인에 대해서 법인의 합병과 분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합병이나 분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비영리법인 역시 현실에서는 합병과 분할의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합병·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기에 비영리법인 합병·분할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박동순 국장은 한국YWCA 조직 재구조화 사례를 통해 나타난 비영리법인 설립, 분할 과정에서의 실무상 한계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며,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다. 법령 및 조례와 지침, 세법 등의 비영리법인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며 “비영리 공익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향 모색이 필요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류홍번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위원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 비영리법인 합병·분할 도입으로 통합 비영리조직 활성화 환경 마련, 비영리 비법인단체에 대한 분명한 규정 마련, 시대 변화

에 맞는 민법 조항 개정 등을 언급하며 민법 조항의 개정 방향과 과제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사단법인 시민 신권화정 사무처장은 비영리민간단체나 임의단체의 다수가 법인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로 법인 설립이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이라며, “주무관청의 규칙과 판단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시대적 판단 착오와 정치적 개입,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법인 허가가 지체되는 피해는 단체가 오히려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공익활동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세무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의 과세·감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역시 “비영리·공익법인이 공익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줘야 한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식의 전환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며,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적극적인 여론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오늘을 출발점으로 시민사회와 법률가, 실무자 등이 모여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야 한다. 법무부와 국회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전략을 함께 후속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04년과 2011년, 2014년 3차례에 걸쳐 비영리법인 관련 허가주의와 합병·분할 내용 신설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민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때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한국YWCA 재구조화 과정의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비영리·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래된 낡은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전 어느 때 보다도 필요성을 공감하며 향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 한국YWCA는 민법개정토론회에서 이어 후속으로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토론회를 기획하며 비영리법인 생태계와 직결되는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녹색특화매장(제로웨이스트) 전국1호점 '부산YWCA생활협동조합' 지정

| 백성희

부산YWCA생활협동조합 상무이사

1987년 '땅과 생명을 살리는 먹을거리운동'으로 출발한 부산YWCA 생활협동조합은 초기 무·저농약, 유기농 생산지를 직접 방문하며 직거래를 시작하여 건강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농민과 부산 시민에게 알려 나갔다.

농촌에서는 무농약, 유기농재배를 통해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도시에서는 생산된 농산물을 적극 구매하는 것을 부산YWCA 중점사업으로 채택해 산청, 함안, 청도, 김해 등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무농약 제품을 연중 수급키로 결정하였다. 이 운동은 부산YWCA생활협동조합의 핵심운동으로 부산YWCA의 중점운동인 생명운동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부산YWCA 생활협동조합이 전개해온 유기농산물 직거래 운동은 전국에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알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2011년 부산YWCA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생산자 소비자조합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양심적인 생산자와 건전한 소비자가 연대하여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생태 지향적 생활재를 직거래하고 공동구매하는 생산자·소비자 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 지속적인 조합원 교육과 자치활동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며 건전한 지역 공동체를 가꾸며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 속에서 경제적 약자이기를 강요당하는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생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립의 조합을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부산YWCA 생협, 생산자·소비자가 함께하는 조합

부산YWCA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생산자·소비자가 함께하는 조합로서의 활동과 친환경 매장으로서의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5월 환경부로부터 전국1호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부산YWCA생활협동조합은 친환경 시설 설치와 매장 운영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5월 지정된 녹색특화매장은 기존 녹색매장 제도를 개선하여 친환경 유통확산을 위해 기존 유통매장 중 이에 적합한 매장을 선정하여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이다. 전국에 5곳이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되었고, 그중 부산YWCA생활협동조합 매장이 지정되어 리모델링을 거쳐 1호점으로 문을 열었다. 부산Y 생협은 지난 2017년, 녹색매장으로 지정되어 부산지역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왔고, 이제는 녹색제품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없는 제품(플라스틱 프리), 대나무제품 등 친환경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사과, 감자, 과일, 농산물, 잡곡류 등은 포장재 없이 소분 판매하고 있으며 세제 등은 '되채우기(리필)'도 가능하다.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생분해성 비닐이나 종이 등을 이용하여 포장재를 최소화하고 있다. 배송 시에도 생분해성 비닐봉투나 종이포장재를 사용한다.

녹색특화매장 전국1호점으로 지정되기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및 부산친환경지원센터의 안내와 지원을 통해 설명회, 간담회, 시범사업 매장 견



학이 이루어졌고 최종 현장점검을 통해 지정을 받게 되었다. 전국 1호점으로 지정을 받고 난 이후 김문진 이사장의 후원으로 쇼핑몰을 구축하게 되었고, 매장 리모델링과 비품 구입을 위해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부산YWCA 이사, 위원, 조합원이 함께 후원에 적극 동참해 주심으로 사무공간을 축소하여 매장을 확대하고 일부 물류 창고를 축소하는 리모델링과 냉동, 냉장 비품을 구축하였다. 부산시 지원으로 내부 배너, 입구 및 외부 간판까지 시공을 완료하고, 환경부로부터 녹색특화매장 지정업체 인센티브로 진열대 및 친환경 물품을 지원받아 새단장을 완료하게 되었다.


안전한 먹을거리로 삶을 나누는 제로웨이스트 매장

"안전한 먹을거리로 삶을 나누는 생활공동체,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가치로 "생명, 밥상, 환경을 살리는 부산YWCA생협"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녹색특화매장 전국1호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으로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식생활교육기관으로 환경, 건강, 배려를 고려한 식생활교육과 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기관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체험과 연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연중 금요장터를 통한 정기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 지역주민, 조합원에게 신선하고 안

전한 먹을거리와 녹색제품을 홍보하는 정기적인 활동을 해 나가고자 한다. EM으로 지역의 수질을 정화하는 환경운동 실천과 물품 재활용, 재사용, 아나바다 장날 개최를 통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도록 계속적으로 활동한다.

관련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운동 및 홍보활동과 외부기관과의 위탁사업을 전개하며 지역네트워크 결성과 녹색특화매장 확산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역내 제로웨이스트와의 연대를 통해 조합원 및 범시민 대상 지속적인 홍보 및 활동과 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쇼핑몰 앱을 활용한 친환경 녹색제품 코너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2021년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된 것을 시대의 요구라 생각한다. 녹색특화매장 전국1호점으로서 지역 제로웨이스트 생협매장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지구를 살리는 행복한 고민, 제로웨이스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행동!

즐겁게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제로웨이스트 매장으로로서의 활동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온·오프라인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다양한 물품 소개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홈페이지(www.psycoop.or.kr)를 접속하면 된다. 

탈핵기후부문

1.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한국YWCA가 제안하는 정책 대응

인류가 초래한 기후 위기가 시작된 것은 꽤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최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도 상승하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피부로 와닿고 있지요.

국제사회는 이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우선 필요한데, 사람들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45%를 줄여 기후파국을 막을 것을 각국에 당부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만, 법안에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800만톤)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로 잡아 유엔과 기후선진국의 권고에 미치지 못하며, 현재까지 제대로 된 로드맵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YWCA는 2050탄소중립목표를 위해 IPCC가 권고한대로 2010년 대비 45% 감축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의 계획을 세울 것, 그리고 신공항개발, 신규 석탄발전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에 반대되는 사업을 중단하고 오히려 탄소배출 기업을 규제하며 탄소세를 도입하는 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부과제	2050 탄소중립목표 2010년 대비 45% 상황조정, 각부처 통합적·단계적 실행계획수립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계획수립	탄소세 도입 및 탄소배출 기업 규제 제도강화: 탈석탄 로드맵 포함	기후위기 대응 역할 사업 페기	기후위기 정책수립 과정에 젠더관점기반 설명을 참여 보장 및 관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이재명	△	○	○	△	○
윤석열	△(?)	△(?)	△	X	X
심상정	○	○	○	○	○
안철수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2. 누군가 말하듯이, 기후위기의 대안은 원자력 발전일까

최근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핵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나와 있듯이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합한 모델이 아닙니다. 핵발전 최강국이 되면 기후위기 뿐 아니라 경제위기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는 태도는 매우 근시안적 접근입니다. 몇몇 대선후보들이 언급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는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실현 가능성도 낮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YWCA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분산적이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핵발전은 큰 위험과 희생을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이지요. 핵발전의 필연적 결과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국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는 이미 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핵폐기물을 어느 지역에 떠넘길지 갑론을박하는 상황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도시의 높은 전기사용량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사회는 핵폐기물과 방사성 물질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드러난 한빛 1, 3, 4호기, 건물문제로 삼중수소가 누출되어 왔으나 은폐해온 월성 핵발전소 2, 3, 4호기, 총 10개의 노후한 핵발전소들은 우리 사회의 핵발전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위험의 핵발전소들을 안전폐쇄되고 신한울 3, 4호기와 같은 고비용의 신규 핵발전소 계획이 폐지될 수 있도록 탈핵 로드맵을 재수립하고 법제화할 것을 한국YWCA는 요구합니다.

세부과제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투자 방향에 핵발전 배제원칙 포함	탈핵 로드맵 재수립 및 관련 법 제도와화	사용후 핵연료 및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	핵발전소 인건 규제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상과 역할강화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규제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위상과 역할강화	소형모듈 원자로 (SMR) 및 핵발전 확대연구 예산삭감	탈핵에너지 전환체제를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교육 제도화
이재명	○	△	△(?)	○	○	△(?)	○
윤석열	X	X	X	△	X	X	△(?)
심상정	○	○	○	○	○	○	○
안철수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3. 방사성 피폭으로부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리의 옆 나라 일본에서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국내 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들과 지진, 홍수 등 늘어나는 기후재난 속에서,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도를 가진 한국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월성원전의 부실한 관리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었죠. 한국YWCA는 국내 핵발전소 지역 방사능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근 피해주민 대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게다가 작년 4월 일본은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는데, 방사성 물질은 잘 아시다시피 반감기가 수백

세부과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대책 마련	수입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강화 및 기준치 강화	핵발전소 인근지역 방사능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이재명	○	○	○
윤석열	△(?)	△(?)	○(?)
심상정	○	○	○
안철수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년이며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희석한다 해도 여전히 위험합니다.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대응책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수입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평화통일부문

1. 여성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 정책

한국 정전협정 70주년이 다가오지만, 남북관계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위축되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시민들의 바람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죠. 민간 교류 협력을 통해 새롭게 열린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지속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한국YWCA는 무엇보다도 전쟁과 분쟁의 피해자로,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여성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세우려는 전 과정에서 주체성과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UNSCR) 1325호는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들의 시민공공의교가 힘을 발휘하여 미 하원에서도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한국YWCA 역시 1980년대부터 평화통일운동을 시작하며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의 장과 더불어 한민족 디아스포라 여성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평화의 연대를 이어왔습니다.

여성-평화-안보(WPS)의 관점을 통해 남북여성이 정상회담 이행에 참여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남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화통일 관련 자문에 상위단위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낮으므로, 공적 기구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야 합니다.

세부과제	남북합의 이행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제도화 방안 마련	평화구축 공적 기구 여성 참여율 50%로 확대	통일부 내 WPS (여성-평화-안보) 관련 기구 설치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위한 비정부여성기구 추진
이재명	○	○	무응답	○
윤석열	○	○	검토	X
심상정	○	○	○	○
안철수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2. 기후위기,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

한반도는 70여 년간 분단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멈추고 동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남북 평양선언에서 남북은 군사적 신뢰를 구축할 것을 합의했음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 공동군사훈련으로 남북 군축이라는 선언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국방력 13위에서

무려 6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2021년 국방 예산의 32%는 전투기 도입이나 경항공모함 건조 같은 무기 체계 획득에 쓰이고 있으며, 2022년 국방부 예산도 작년보다 4.5% 늘어났습니다. 이는 남북 간 불신을 초래하고 평화 프로세스 동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군비를 축소하여, 오히려 이 비용을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남북이 협력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요. 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남북과 관련국들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비핵화를 위한 합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여 남북 교류와 협력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부과제	판문점 선언의 국제 비준	남북경협 합의 이행 추진단 설치 및 로드맵 작성과 거버넌스 구축	남북사회 문화교류 법·제도 정비	국방예산 삭감 및 공격적인 무기 개발과 도입 중단	기후위기·코로나 시대 협력 체제 구축 및 북한 여성과 취약계층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 포괄적 대북 제재의 해제 방안 마련
이재명	○	△	○	무응답	○
윤석열	X	○	○	X	△
심상정	○	○	○	○	○
안철수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3. 70년 분단의 한반도에서 평화교육이란

분단은 남과 북의 사회에 갈등과 반목을 가져왔고, 오랜 시간동안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끼쳐왔죠. 통일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이슈이지만, 민족성에 바탕한 통일 담론을 넘어서 평화의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일 이후 어떤 사회가 되고 싶은지 평화의 지향과 그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들을 통해 인권과 평등, 민주 사회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관점의 글로벌 평화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의무적인 평화교육도 필요하고 시민 평화교육을 위한 지원과 확대도 필요하겠죠.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청년들이 만남과 교류를 통해 이질화를 완화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남북 청년 세대의 자치교류 협력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세부과제	북향민(탈북민) 여성폭력 피해 및 위기 상황 지원 위한 종합-원스톱 방안 마련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청소년평화교육 전담 교육 기관 및 센터 개설	남북 청년세대의 교류협력기구 및 조직 설치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정부공직자 평화 교육 의무화 및 시민 평화교육 지원과 확대 여성기구 추진
이재명	○	△	무응답	△
윤석열	○	△(?)	○	무응답
심상정	○	○	○	○
안철수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성평등부문

1. 20대통령선거 후보가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성평등 공약

지난 5년은 여성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어낸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한국YWCA 성평등 정책 제안의 큰 제목을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로 정했습니다. 만들어진 정책들을 제대로 반영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아직 미흡한 영역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큰 틀로 제안한 것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성평등 정책은 1998년부터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독립된 영역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여성정책 총괄 업무는 1998년 정부장관(제2)실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이어져 2001년 여성부가 되었습니다. 2005년 이름이 바뀌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여성가족부는 현재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성별 갈등으로부터 제기된 문제들, 역할 수행과 관련된 비판들을 보며, 여성가족부에 주어진 역할에 비해 권한이 너무 없었던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성평등한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마련 뿐 아니라 각 기관들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러 성평등 정책 기반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수행되게끔 운영하는 역할은 부여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이 있어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현재 8개 부처에만 있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모든 부처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세부과제	여성가족부 내 성주류화 업무 기능강화 및 예산 확대	기획 재정부에 성인지 예산 전달 부서 설치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확대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지방분권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권역별 양성평등 정책 과제 점검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 협력체계 구축 강화
이재명	△	△	△	△	○	○	○
윤석열	검토	검토	검토	무응답	검토	검토	검토
심상정	○	○	○	○	○	○	○
안철수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2. 한국YWCA가 제안하는 젠더폭력 정책제안

지난 5년, 한국 여성들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미투 운동, 위드유 운동, N번방 사건, 불법촬영 범죄와의 싸움, 파트너 폭력(데이트폭력)……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많은 여성들은 계속해서 폭력에 노출되었고 침

묵을 강요당했습니다. 2018년, 침묵을 깨고 나온 목소리와 그들의 증언을 지지하고 연대한 사람들 덕분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제대로 인지되면서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도 강화되었고, 내용 면에서 아직 미흡하지만 스토킹 처벌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젠더 폭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더 멀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비동의 간음죄, 즉 상호 관계에 있어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면 처벌한다는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돕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현재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후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신고 후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여러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를 점령하고, 그 기사의 댓글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들은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댓글로 2차 피해를 겪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세부과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	성매매 여성 인권보호 및 성매매 확산 방지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권력형 성범죄 사건 처리체계 작동방안 마련	온라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공공부문, 학교 등 폭력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디지털 문해교육, 성인지갑수성 교육, 인권교육 체계 수립 및 시행
이재명	검토	○	○	○	○	○	○
윤석열	○	검토	○	○	○	○	○
심상정	○	○	○	○	○	○	○
안철수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3. 교육 현장 내 젠더폭력,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교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교 내 폭력을 방지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쿨미투로 드러난 우리 사회 교육 현장의 민낯은 그간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일상적인 불평등, 혐오 표현, 불법촬영과 성범죄, 형식적인 폭력 예방 교육과 성평등 교육 사례들은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성범죄 교원에 대해 '최대 10년간 담임을 맡지

세부과제	교원,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의무화	성평등교육 강화 및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의무화	예비교원 양성 강화 및 자격화	학교 현장 안전성 강화위한 점검체계 확립 및 지표개발 적용	성범죄 교원 경력자격 박탈 및 신상공개 의무화	피해학생 보호 시스템 확립 및 타워 확립	교육 분야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및 체계화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위한 양성평등 교육 강화
이재명	○	○	○	△	○	○	○	○
윤석열	○	○	○	○	X	○	○	검토
심상정	○	○	○	○	△	○	○	○
안철수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못 한다' 등 소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육부가 2014년부터 도입한 성범죄 교사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만료 후 해당 교원은 별다른 제약 없이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교사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지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과 처리과정 공개를 꺼려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젠더폭력의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성평등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양질의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교원 자격 취득 과정에서도 성평등 인식에 대한 교육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학교 현장의 안전을 위해 불법촬영 등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성범죄 교원에 대한 자격박탈과 처리과정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 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분야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청소년에게 안전한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부문

1. 가장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경제정의, 청년 주거지원제도

한국 청년(19-34세)의 80%는 한국사회를 '헬조선'으로 평가하고 75%는 '탈조선', 즉 한국을 떠나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는 청년들이 살기에 힘든 곳이 되었으며, 벗어나고 싶은 국가가 된 것일까요. 소위 수저계급론을 바꾸지 못할 현실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길들여지던 때부터 문제가 보였던 것은 아닐까요.

현 시대의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삶의 목표나 방향보다도 당장의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거문제부터 그렇습니다. 현재 청년 주거지원 제도는 지자체 재량으로 실시하고 있기에, 사각 지대에 놓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기에 지역별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 제도의 가이드라인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월세 지원 제도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에는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

세부과제	여성가족부 내 성주류화 업무 기능강화 및 예산 확대	기획 재정부에 성인지 예산 전달 부서 설치	현행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확대	각 부처 양성평등정책 소관업무 및 설치근거 법률 제정	지방분권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권역별 양성평등 정책 과제 점검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및 시민 협력체계 구축 강화
이재명	△	△	△	△	○	○	○
윤석열	검토	검토	검토	무응답	검토	검토	검토
심상정	○	○	○	○	○	○	○
안철수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사회 초년생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경제활동 현황 분석에 따라 대상자의 기준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2. 누구에게나 기회가 제공되는 취업 시스템

학벌에 의한 취업이 아닌 효과적인 산업계 변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계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고졸청년의 연계를 위한 고졸청년 인재 육성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비대면 교육과정 개발과 실습 지원도 필요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현재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빠져 있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청년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파악하는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여성 청년의 취업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과제	1)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대상 취업 준비 지원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확대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개선	학생들의 취업기술 습득을 위한 비대면 실습 방안 연구 및 마련	기업과 고졸청년의 연계를 위한 고졸청년 인재 육성모형 구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내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여성청년의 취업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여성 미취업자 실태조사 진행
이재명	○	○	○	○	○
윤석열	○	○	○	○(?)	○
심상정	○	△	○	○	○
안철수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3.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반값등록금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으로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등록금 50% 이상의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 3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을 분석하고,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 시에는 등록금 인하로 인한 교육의 질이 하락되지 않도록 교육의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책정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용·관리에 대한 감시 체계를 도입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세부과제	1) 대학교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		2) 사립대학교 등록금 책정 기준 및 등록금 사용에 관한 감사 확대		
	근본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예산 분석	등록금 완화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마련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책정 기준 및 사용·관리에 대한 감시체계 도입	사립대학교 책정 기준 공개 의무화, 투명성 제고	사립대학교 등록금 책정 기준 분석을 위한 공적회계시스템 구축, 종합조사 확대
이재명	○	○	○	○	○
윤석열	○	○	○	○	○
심상정	○	○	○	○	○
안철수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한국전쟁을 끝냅시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큰 걸음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이뤄냅시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종식시켜 적대와 불신, 신냉전 구도를 걷어내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한 4.27 선언의 벅찬 감동을 기억합니다. 양 정상이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던 그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부 간 협상에만 맡겨두지 말고 시민이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자고 나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코리아 피스 메이커들은 2020년 7월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을 발표하고 종전과 평화를 위해 행동해왔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거리 캠페인과 온라인 활동을 통해 지역과 국경을 넘나들며 서명 참여와 선언 지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2022년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모든 후보들이 한반도 종전과 평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오랜 적대와 불신을 걷어내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군사적 긴장과 군비 경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한반도 신뢰 구축과 화해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미중 경쟁이 신냉전으로 굳어지지 않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치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년 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멘텀을 살려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 제재를 추가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시키지 못했고 군사적 위협과 제재는 더 큰 군사적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북미 관계 역사는 적극적인 신뢰 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위기와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켜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과거 실패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기간에 미중 간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대립과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마주하였습니다. 이런 미중 경쟁이 정전 상태의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신냉전으로 굳어질까 우려가 큼니다.

여기에 더해 남과 북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군비 증강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게 됩니다.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인 남한의 내년 국방비는 54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기 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역대 최대의 국방비 증액과 최첨단 무기의 도입은 한반도의 신뢰 구축과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대화와 협상이 멈춘 사이 북한은 북한대로 미사일 성능 개량 등 '자위력 확보'를 내세운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 할 자원을 남북 사이에 불신과 적대를 촉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 구축은 군비 경쟁과 핵 확산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미중 간 신냉전의 위험을 감소시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화해와 협력을 촉발할 것입니다. 2017년 겨울 문재인 대통령이 이듬해 봄에 열릴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를 제안하고 2018년 새해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봄을 열어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국전쟁, 70년이면 충분합니다.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의 확산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 코리아 피스 메이커들은 한반도 주민과 전 세계 시민들의 평화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남북미 중은 정전협정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여 적대와 불신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이자 열쇠입니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종전을 지지함으로써 제재와 고립화가 아닌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 평화 여정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에 무관하게 이뤄져야 하며 제때에 필요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치료제를 북한에 공급하고 감염병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합니다.

올해 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여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력 시위가 무력 시위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국방비와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남한이 먼저 연례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한반도 평화선언>에 참여하고 종전과 평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비롯하여 남북, 북미 정상이 어렵게 맺은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신뢰 구축과 화해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구상과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코리아 피스 메이커들은 한반도 주민들과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을 널리 알리고 서명을 확산하여 정전협정 70년이 되기 전에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만들어 냅시다. 2022년 호랑이의 큰 걸음으로 적대와 불신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성큼 나아갑시다.

2022년 1월 19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삼열(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김원웅(광복회 회장), 문정형(신부,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평화바람), 박홍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수연(기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정숙(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원영희(한국YMCA연합회 회장), 이기범(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현숙(사)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우(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기섭(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진영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강주석(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신부), 김태성(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나핵집(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본부 본부장), 도법 스님(실상사 회주), 변종제(신인간사 대표이사), 윤승길(한국민족종교협의회 대외협력 위원장), 이관도(원음방송 사장), 조송래(유교 성균관 총무처장)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참여 단체 (총 372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국제 파트너 단체 (총 73개)

| 20대 대선 탈핵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진전된 탈핵 공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핵발전은 하루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는 후보자라면 국민들이 불안한 핵발전과 핵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탈핵을 약속해야 한다. 탈핵을 빠르게 앞당기는 것만이 방사능 피폭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 대선에서 핵발전의 위험은 경시되고 있다.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핵발전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후 위기가 걱정인 것인지,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기후위기를 부각시키는 것인지 진의가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폭염과 폭우, 해수 온도 상승과 같은 이상 기후는 핵발전을 중단시켜왔다. 핵발전이 탄소 중립의 수단이기엔 커녕, 위태로운 발전이란 사실은 외면되고 무시된 채 핵발전 확대의 기회로 기후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 우리사회는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지난 5년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핵산업계의 집요함은 핵발전소 신규 건설 국가 명단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 핵발전소 수출 전략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역시 적극 추진되어 왔다.

더욱 비극적이고 개탄스러운 것은 차기 정부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핵발전을 늘려나간다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10당 후보는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탈핵 정책 때문이라며, 탈핵 정책을 폐기하고, 건설 백지화 된 핵발전소를 재 추진하겠다고 떠벌이고 있다. 여당 후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탈원전을 감원전이란 말로 정정하더니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마저 철회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가동중인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신규핵발전을 추진하는 퇴행은 용납될 수 없다.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에 불과한 위험한 소형모듈원자로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소재 및 인근 지역들을 더더욱 위험으로 내모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약속해야 한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탈핵을 하루빨리 구현하여 안전한 사회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요구한다. 1. 핵발전소 조기폐로 및 탈핵 법제화 2.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 3. 핵발전 규제 강화 4. 지역 권한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 5.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6.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7.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은 탈핵을 앞당기면서 정의로운 전환과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염두에 두는 대선후보라면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 위험을 경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을 핵발전의 위험으로 이끄는, 대선후보들의 위험천만한 핵발전 발언들을 자탄한다. 국민들을 위험 사회로 내모는 위험한 후보는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들,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2022 탈핵대선연대가 요구하는 7대 과제와 세부 요구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에 따라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후보인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위험사회로 국민들을 내모는 후보인지, 변별할 것이다.

2022년 1월 11일

2022탈핵대선연대

가톨릭기후행동, 광안만녹색연합, 국제기후중고시민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행동지구인,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노를담수녀회,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을달살림협동조합, 반핵의사회, 부산녹색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여환경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산적석탄화력반투위, 산적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소비자후위기비상행동, 소비자후행동모아시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활강남, 강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연평, 서울, 송파,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동부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원주녹색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인천녹색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열음교육공동체,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농민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교성요한JPIC, 청소년기후행동, 초록을그리다, 탈성장과대안연구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탈핵비움실천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총학생회,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69개 단체)

2022 YWCA 신년예배



YWCA 신년 예배가 1월 6일(목) 오전 10시 현장 참석자 30여명, 한국YWCA 유튜브 채널(YWCA KOREA)의 온라인 접속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예배는 '한국YWCA 100주년, 회원YWCA 기대와 바람'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연합회와 52개 회원YWCA가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한국YWCA 기도 영상을 보며, YWCA 100주년에 다시 되새겨야 할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만들겠다는 YWCA 목적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사)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취임식



(사)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신임사무총장 취임식이 1월 6일(목) 신년예배 직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구정혜 사무총장은 1997년 한국YWCA연합회 간사로 YWCA에 입사하여 25년간 실무활동가로 활동하였다. 행정위원회, 기획위원회, 프로그램 총괄 부장을 거쳐 2011년 한국YWCA 내 3개 법인을 총괄하는 국장을 역임하며 한국YWCA 사무행정을 총괄해왔다. 2019년부터는 한국Y조직 재구조화와 Y거버넌스 연구 특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조직관리와 행정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으며, 포용과 헌신으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YWCA의 지속가능한 YWCA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구정혜 사무총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YWCA전국연

맹 송인동 이사장을 비롯해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서다미 회장, 김성이 연합회 실행위원 등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구정혜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한국YWCA가 한국 사회 시민운동영역의 지방분권화를 모범적으로 시도하는 연합체가 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주체적인 지역 운동체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동료들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성장을 밀어주는 사람이 되겠다"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맡은 자로서 충실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YWCA 100년의 역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새 시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응전하는 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 Y-틴 전국협의회



2022 Y-틴 전국협의회가 1월 7일(금) 오후 1시 온라인(ZOOM)에서 개최되었다. 22개 회원YWCA에서 Y-틴 50명, 실무활동가 22명이 참석하였으며 김기영 Y-틴 전국협의회 회장이 진행하였고, 박연미 총무 기도로 시작을 알렸다. 2022년 Y-틴 전국협의회는 2021년 청소년활동을 되돌아보고 2022년 운동주제와 임원을 선출했다. 운동 주제는 '기후위기'로 정해졌고 Y-틴 전국협의회회장은 대전YWCA에 이선우 회원으로 결정되었다.(자세한 내용은 32쪽 참조)

2022탈핵대선연대 20대 대선 탈핵정책 제안 기자회견

한국YWCA를 비롯한 69개 단체가 함께하는 2022탈핵대선연대는 1월 11일(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앞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 △핵발전 규제 강화 △지역 권한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을 7대 정책과제로 요구하고, 핵발전 관련 질의서와 7대 과제 19개 항목별 동의 여부 답변서를 덧붙여민 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에게 요청했다. 후보들의 답변을 정리한 내용은 탈핵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신년 기자회견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은 이 1월 19일 정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한국전쟁을 끝냅시다'라는 주제로 새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새해 한반도 평화와 종전을 기원하는 박 터뜨리기 상징의식을 가졌다. 함흥 출신인 업에스터 전 한국YWCA 실행위원은 발언자로 참석하여 동일한 언어·민족 공동체인 남북이 평화의 전진을 위한 대화와 만남, 설득을 지속할 것을 호소했다.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 개정 토론회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가 1월 26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번 민법개정 토론회는 비영리법인 합병, 분할과 설립허가주의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토



론회로, 발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 등 규제 개선과제를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가, 비영리법인 합병, 분할 제도 도입 및 과제에 대해 한양대학교 송호영 교수, 비영리법인 설립, 분할 과정에서의 실무상 한계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박동순 조직혁신지원국 국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으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위원회 류홍번 위원장, 사단법인 시민 인권화정 사무처장, 서울시립대학교 박훈교수, 법무부 담당자들이 참여했다.(자세한 내용은 40쪽)

2022년 임시전국사무총장협의회



지난 2월 4일(금) 2022년 임시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구정혜 사무총장 진행하에 온라인(줌)으로 개최되었다. 2022년도 4명의 신입사무총장(목포YWCA 과수현 사무총장, 서울YWCA 김양선 사무총장, 의정부YWCA 정진아 사무총장, 춘천YWCA 이영숙 사무총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임시전국사무총장협의회에서는 변화되는 한국YWCA 연합회 이사회의 사무총장 법인이사 대표 및 사무총장 공천위원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안건으로 모였다. 사무총장협의회 안건협의 결과, 연합회 사무총장 법인이사 대표 2인은 안산YWCA 박희경 사무총장과 청주YWCA 이혜정 사무총장이 후보로 선출되었고, 사무총장 공천위원 대표 1인으로는 논산YWCA 박수정 사무총장이 후보로 선출되어, 새롭게 변화되는 한국YWCA연합회 이사회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밖에도 YWCA 운영과 한국

YWCA 100주년을 위한 행정사항을 공유하였다. 2022년에도 전국 52개 회원YWCA 사무총장들은 연합회와 함께 지역 내에서 책임있는 운영과 운동주체로서 나아가며, 정의, 평화, 생명 운동을 실천하는 YWCA 실무활동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2022 탈핵대전연대, 우리동네 핵발전소 건설, 찬성하십니까?



한국YWCA가 함께하는 2022탈핵대전연대가 2월 14일(월) 시청광장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소용원자료(SMR) 연구 개발 등의 공약을 내고 있음에도 정작 핵발전소를 어디에 지을지, 핵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핵발전소는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건설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도시 시민들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렵고, 핵폐기물 등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에 2022탈핵대전연대는 “우리 동네에 핵발전소 건설”을 가정하여 과연 서울시민들은 서울에 원전을 짓는다면 찬성할지 거리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핵발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고 강남역, 여의도 현대백화점 앞, 홍대입구역, 광화문 인근에서 캠페인을 이어가갈 예정이다.

2022년 YWCA 신임회장 교육



2022년 2월 16일(수) 오후 1시부터 <2022년 YWCA 신임회장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신임회장 교육에는 총

10명의 신입회장(김해YWCA 김혜진회장, 대구YWCA 김연희 회장, 원주Y 이수복회장, 익산Y 손계영회장, 전주Y 이현순회장, 천안Y 한정순회장, 평택Y 윤영순회장, 포항Y 김인에회장, 하남Y 배운례회장, 통영Y 원필숙회장)이 참석하였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YWCA 회장의 역할 이해> 강의를 통해 회장의 역할과 책무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어서 구정혜 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의 <YWCA 기본이해 : YWCA목적, 운동과 운영정책> 강의를 통해 한국YWCA의 변화된 법인구조, 연합회와 회원Y와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장의 <YWCA재구조화 이해>강의를 통해 YWCA 재구조화의 과정과 현황, 그리고 재구조화를 위한 회원YWCA 이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학습했다.

Y-net(YWCA 인트라넷 사이트) 오픈



국내 NGO 최초의 자체 개발 인트라넷 시스템이자, 2005년부터 한국YWCA 인트라넷으로 사용해왔던 ‘민들레넷’이 사용환경(IE)의 서비스 중단과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2022년 2월에 종료하고, 2022년 2월 17일자로 새로운 YWCA 인트라넷 사이트인 'Y-net(와이넷)'을 오픈하였다. Y-net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사이트 접근성을 높이고, 연합회와 회원YWCA의 정보 공유 및 소통 방식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개발되었다. Y-net 주요 기능은 연합회와 회원YWCA 간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YWCA 기록물들을 저장하고 공유하는 ‘자료실’, 그리고 한국YWCA 전체 현황 및 통계자료를 취합하는 ‘보고/현황조사’이다. 연합회는 Y-net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회원YWCA가 새로 도입한 상용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YWCA 100주년 온라인 후원캠페인 전개

한국YWCA연합회는 YWCA의 100주년 응원하고, 많은 시민 회원들이 100주년에 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온라인 모금함을 개설했다.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 상단 후



원하기 메뉴 <후원 모금함> 들어가면 100주년 온라인 모금함이 개설되어 있다. 올해 진행되는 100주년 기념사업을 후원할 수 있는 <100주년 기념사업 후원모금함>, 총 1억 원을 모금하여 공모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지역에서의 활동 지원하는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모금함>, 창립정신을 이어가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1922 장학금> 모금함이다. 온라인 모금함은 계좌이체를 비롯한 카드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인적사항도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링크를 전달하여 지인 등에게 100주년 모금을 소개할 수도 있다.(자세한 내용은 18쪽)

2022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2022년 2월 17(목) 오후 1시 온라인으로 2022년 (사)한국YWCA 연합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52개 회원YWCA 대표를 비롯하여 개정된 정관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연합회 직무상대표 등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예배를 드렸으며, 공천위원·법인이사 선출과 2022-2023년 한국YWCA 운동 및 운영 정책 채택, 2022년 한국YWCA연합회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안건을 처리하였다.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단으로 원영희 회장, 조은영 제1부회장, 이은영 제2부회장, 조은지 청년부회장이 선출되었다.(자세한 내용은 6쪽)

2022 선거대응 논의 워크숍II

YWCA RE100운동팀에서는 1월 11일(화) 오후 2시 <2022 선거대응 논의 워크숍 두 번째: 지방선거 기후위기 운동방향과 과제>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2022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전환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회원 YWCA RE100 운동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하는 자리이 많은 참여를 바란다. 2022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전환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회원 YWCA RE100 운동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하는 자리이 많은 참여를 바란다.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한 45차 목요기도회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45차 목요기도회가 1월 27일(목) 오후 7시 유튜브에서 진행됐다. 한국YWCA연합회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저항(CDM)이 2022년 2월 3일이면 1년이 되어 가는 가운데,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에 용기와 연대를 표하고자 45차 목요기도회를 주관하였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과 전화 등 국내의 소통망을 차단하여 국제적 연대와 지원을 끊어내려는 군부 치하의 시민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루빨리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인권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도와 함께 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하는 YWCA의 연대는 2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미얀마 시민불복종 운동 1년, 특별 목요기도회에서 미얀마 민주화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기도의 자리로 이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38쪽)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후원현황



(2022. 2. 25 현재)

1. 100주년사업 후원

이름	후원 금액	후원처	이름	후원 금액	후원처
홍인숙, 故 서희전	2,000만원	100주년 사업 후원	권오형	100만원	100주년 사업 후원
황혜숙	1,000만원		이혜련	10만원	
정이숙(목포Y)	100만원		문상순(울산Y)	100만원	
전국중경회장단 모임	500만원		김병찬/임정임	20만원	
연합회 회장단	1,000만원		이종임	100만원	
동부지역 회장단	10만원		이행자	300만원	
함희경	100만원		김은경	100만원	
유성희	100만원		김형	300만원	
의류버자회	93만2천원		이해우	3만원	
합계			59,362,000		

2.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후원

이름	후원 금액	이름	후원 금액	이름	후원 금액
김순영(자문단)	100만원	원영희	100만원	차경애	100만원
박용옥(자문단)	100만원	조은영	100만원	구정혜	100만원
이주영(서울Y)	200만원	이은영	100만원	김경희(수원Y)	100만원
최현자(청주Y)	100만원	이혜경(목포Y)	100만원	박동순	100만원
유도희(여수Y)	100만원	김애자(목포Y)	100만원	김은숙(목포Y)	100만원
임국이(대전Y)	100만원	한영수	100만원	유태규/김경천(광주Y)	100만원
김영희(연합회)	300만원	이숙현	300만원	오영란	100만원
고미연(제주Y)	100만원	함희경	100만원	목포YWCA	100만원
강난파(제주Y)	100만원	유성희	100만원	서귀포YWCA	100만원
홍기자(전주Y)	100만원	이주영(연합회)	100만원	윤세영	1만5천원
박금자(강릉Y)	100만원	연합회 국장 (박동순, 박은실, 배정미, 송주희, 최수산나)	100만원		
합계					36,015,000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22. 1. 1~ 2. 25)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고이나, 돌람수렌, 박은실, 김병찬/임정임, 신성균, 배정미	170,000
합계		170,000

경인·강원권역

강릉YWCA

이명주 간사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활동



강릉YWCA는 지난 12월 21일(화), 23일(목), 24일(금), 총 3일 동안, 경포고등학교와 동명중학교, 하슬라 중학교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다. 아침 08시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감시단 10명이 참석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홍보지와 기념품을 나눠주며 유해환경의 위험성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였다. 이날 동참했던 학생들은 호기심과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친구들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동해YWCA

정미숙 팀장

동해YWCA 제34회 정기총회

동해YWCA는 1월 20일(목) 오후 2시 제34회 동해YWCA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예배 후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보고하고 2022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알리고 2022-2023 한국YWCA 운동정책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다. 한국YWCA가 지난 100년 동안 비전을



향해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의 100년도 평화가 깃든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를 위해 힘을 다짐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사)서울YWCA

성지희 팀장

기도실 봉헌식



(사)서울YWCA는 창립 100년의 해를 맞아 기도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1월 25일(화) 봉헌식을 가졌다. 배은경 기도영성분과위원장의 인도로 진행된 봉헌식에서 이유림 회장은 기도실을 찾은 이들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그 생명력으로 온 마음과 몸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하며 기도실이 명실상부한 기도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도실 리모델링은 시어머니故한순옥 명예이사를 추모하며 이경연 서울YWCA 이사(기도영성분과위원회 위원)의 봉헌헌금으로 이루어졌다.

속초YWCA

백수미 총장

창립기념행사



속초YWCA는 12월 3일(금) 오후 2시,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4층 강당에서 속초감리교회 김동준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감사예배를 드린 후 엑스포장 분수대 앞에서 창립기념행사(EM

발효액 1.8L 300개, 무료나눔)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하였다. 속초YWCA는 지역사회에 책임성을 가진 시민운동 조직체로서 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환경운동, 청소년 운동 등을 펼쳐 나가고 있다.

원주YWCA

양지영 간사

제55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오후2시 원주YWCA 제55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2021년도 사업보고와 2022년 사업계획안을 보고하였고 허정숙 증경회장의 이사퇴임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또한 회원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강명옥 회원과 박경심 회원에게 봉사상 표창이 함께 있었다. 총회 후 조속자이임회장 이수복 신임회장의 이취임식이 회원들의 감사와 축하 속에서 진행되었다.

(사)인천YWCA

양하은 간사

Y-틴·대학청년Y 2021 메리 와이페스티벌



(사)인천YWCA는 2021년 연말에 'Y-틴, 대학청년Y 메리 와이(Merry Y)페스티벌'을 메타버스로 개최하였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메타버스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3가지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후 제작한 가이드북을 인천 관내 300여 학교에 전달하였으며, 송년파티 진행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으로 게더타운을 선정하여,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참

석한 Y-틴과 대학청년Y가 함께 마음을 열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경기권역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2022년 Y-VISION 기도회



고양YWCA는 2월 24일(목) 법인재구조화에 따른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앞두고 1월 11일부터 2월22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Y-VISION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YWCA가 공유하는 기도회 자료로 예배를 드리고, 매번 '한국YWCA 미래를 위한 95개 논제'를 함께 읽으며 Y의 운동정신과 철학, 가치를 내재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 시간들이 사단법인 창립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신년 기도회



남양주YWCA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사, 실무자들이 모여서 신년 기도회를 진행하였다. 한국YWCA의 미래를 위한 95개 논제를 함께 나누며 YWCA의 목적문과 활동가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공동체, 정의, 평화, 생명

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활동가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YWCA 이현순 사무총장
원미 노인참여나눔터 월례회의 및 설명절 용품 후원



부천YWCA는 1월27일(목) 노인참여나눔터 1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를 통해 2022년 사업계획을 의논하며 다양한 활동으로 즐겁고 행복한 모임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저소득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실천활동 캠페인에 참가하는 등 사회참여활동도 활발하게 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나눔터를 이끌 임원진도 새롭게 구성하였다. 특히 부천시약사회(윤선희회장)가 작년 연말 자선 모금행사를 통한 기금을 부천YWCA에 후원하여 원미노인참여나눔터 저소득 어르신 26분에게 설 음식을 나누어드려 따뜻한 명절을 보낼수 있게 되었다.

성남YWCA 장옥현 사무총장
지역여성 공동체 일자리2.0



성남YWCA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을 받아 성남여성비전센터와 함께 '지역여성공동체 일자리 발굴'사업을 시작했다. 본 사업은 일자리 파이프 프로그램으로 2월에 먼저 일자리 발굴

단을 5명을 선정하였고, 3월부터는 발굴단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지원,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함께 논의하며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사)수원YWCA 강은진 간사

2022 탈핵대선연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촉구 동시다발 전국행동



(사)수원YWCA는 1월 19일(수) 지역사회 환경단체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핵발전소 백지화 촉구 동시다발 전국행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수원YWCA 한금진 회장은 각 당에 탈핵 정책을 공약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기자회견문에 담아 낭독하였다. 수원YWCA는 전국행동 참가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안전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사)안양YWCA 문찬미 간사
안양YWCA 정기총회



(사)안양YWCA는 1월 13일(목) 이사, 위원, 실무활동가 등 정회원과 준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사)안양YWCA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확정된 계획을 수행하

며 여성의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고 폭력과 차별이 사라지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의정부YWCA 김홍래 부장
사무총장 이취임식



의정부YWCA는 2021. 12. 29(수) 11시 의정부YWCA 회관에서 3대 황기숙 사무총장의 이임식과 4대 정진아 신임 사무총장의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이사, 위원, 직원들만 참석하여 1부 예배, 2부 이·취임식, 3부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37년간 의정부YWCA에서 헌신하신 황기숙 사무총장의 이임사에서는 YWCA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고 정진아 사무총장의 취임사에서는 의정부YWCA의 앞으로의 비전과 행보를 엿볼 수 있었다. 정진아 사무총장은 2022. 1. 1일부터 '회복과 혁신'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하남YWCA 김유진 간사
창립 30주년 기념 사랑의 일일찻집



하남YWCA에서는 지난 12월 14일(화) 창립 30주년 기념 사랑의 일일찻집을 운영하여 불우이웃돕기 및 사업기금 마련을 하였다. 또, 행사 중간에 30주년 기념 행사로 초대회장부터 역대 회장 소개와 케익컷팅식도 진행하였다. 사전에 1만원 티켓

을 판매하여 다과를 제공했고, 바자회 물품으로 떡국떡, 홍삼 꿀, 유자청, 도라지고, 의류, EM삼푸 등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마련하였다. 이번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와 YWCA 기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충청권역

논산YWCA 조은숙 주임

논산YWCA 창립 20주년 기념예배



논산YWCA는 12월 1일(수) 창립 20주년을 맞아 논산중앙장로교회 비전홀에서 기념예배를 진행했다. 기념예배와 축하마당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인해 내빈 초청없이 소규모로 진행했다. 행사는 공로패 수상, 논산YWCA 바다위십 선교단과 레인보우 싱어즈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대전YWCA 지속가능 우수실천사업 수상



(사)대전YWCA는 1월 20일(목) 오전 10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생활쓰레기제로프로젝트 "생쓰영그램(생활쓰레기0g)" 사업으로 우수실천사업에 선정되었다. 생쓰영그램은 일회용품증가와 플라스틱쓰레기가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쓰레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순환하여 재사

용하는 사업이다. 대전YWCA는 이를 통해 유통업체들의 소비 선순환과 효과적 재활용품 사용을 권장하였다.

(사)세종YWCA

장은정 부장

탈핵기후생명운동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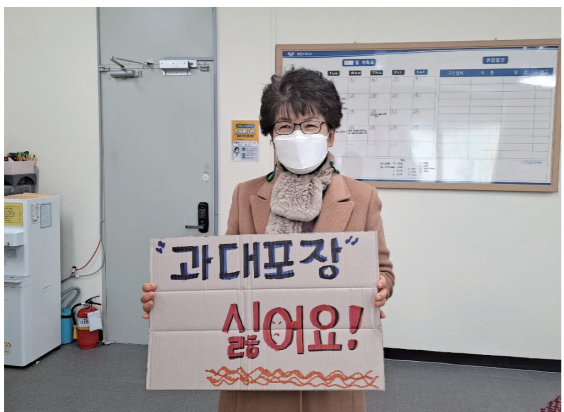


(사)세종YWCA는 매주 금요일 11시 세종시민연대와 함께 탈핵 기후생명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금)에도 탈핵기후생명운동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슬기로운 기후행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세종YWCA는 '지금 당장 나누부터 기후행동을 시작하자'의 슬로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과대포장 선물 안 받고 안 사기 캠페인



제천YWCA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실속포장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 내방객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선물 안 받고 안 사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 선물을 주고 받는 명절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똑똑하고 착한 소비문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리고 장바구니 사용, 쓰레기 최소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를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천안YWCA

곽효정 팀장

2022 구정 비대면 특별전 '착한 소비 운동'



천안YWCA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자영업자와 영농조합원들을 위해 착한소비운동을 진행 중이다. 지역 영농조합 제품, 친환경 제품 등으로 품목을 구성하여 직거래 장터, 비대면 '착한 소비 운동'으로 선주문 후배포 형식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나눔 운동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인 천안YWCA는 앞으로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주민들과 깊이 소통하는 생명사랑 공동체 운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사)청주YWCA

한기연 간사

생명의 길, 교회와 함께 세상을 푸르게



(사)청주YWCA는 1월 17일(월) 충북·청주시 기독교 연합회와 기후위기 협약을 맺고, 기후위기 대응활동으로 '생명의 길, 교

회와 함께 세상을 푸르게' 사업을 펼쳐 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일회용품을 줄이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환경십계명을 채택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비전선포식도 진행하였다. 이 협약식을 통해 충북도 내 각 교회에서는 자원순환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교회를 대상으로 환경선교사 과정을 개설하여 생태리더십 개발과 환경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충주YWCA

김세희 부장

36주년 창립감사예배 및 성탄예배



충주YWCA는 12월 20일(월) 오후 2시, 회관 4층 다목적실에서 충주YWCA의 36주년 창립감사예배 및 성탄예배를 진행했다. 충주제일감리교회 담임목사이신 공병문 목사님을 모시고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루기 4장 12절의 말씀을 전했다. 코로나로 인해 소규모로 진행되면서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지만 36년동안 함께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주YWCA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계획하심에 부응하는 충주YWCA가 되기를 소망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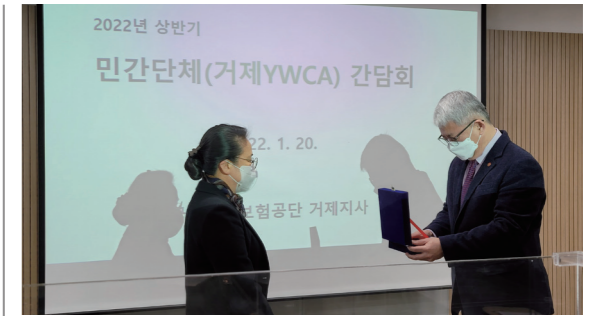
경상권역

거제YWCA

김의향 간사

반부패 청렴실천 캠페인

거제YWCA는 1월 20일(목) 의료소비자권익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 공으로 감사패를 받게 되었다. 거제YWCA에서는 2015년부터 거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홍보 사업에 참여하여 반부패 청렴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분성산 환경지킴이



김해YWCA는 매주 주말과 공휴일 오전 5시 30분, 김해 분성산에서 분성산 환경지킴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관련한 많은 활동들이 내부에서 외부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분성산 등산로는 도심지와 가깝기에 더욱 환경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 향상과 내가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의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마산YWCA

석예은 간사

직원 워크숍 프로그램



마산YWCA는 1월 27일(금) 오전 10시 다이름 플러스에서 직원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직장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 문화 만들기 및 2022년 목적사업 아이디어 확산을 위해 퍼실리테이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원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개발을 위한 가족공예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되었다. 마산YWCA는 올 한 해의 목표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직원 워크숍을 마쳤다.

부산YWCA 최수정 간사

2021 부산YWCA 회원성탄제



부산YWCA는 12월 16일(목) 오후 4시, 부산YWCA 일할실에서 2021 부산YWCA 회원성탄제를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생태계의 평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평화를 일구는 YWCA를 위한 기도를 함께 나누고,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의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ina)'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사천YWCA 송주은 간사

물가안정 캠페인



사천YWCA는 1월 24일(월) 삼천포종합시장에서 사천YWCA, 지역경제과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물가안정과 가격표시제 이행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설 성수품 16개 중점관리 품목의 물가안정과 더불어 가격표시제 이행과 전통시장 애용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춤한 경제를 살리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양산YWCA 김유경 간사

신년하례회 개최



양산YWCA는 1월 12일(수) 이사·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진행하였다. 서로를 격려하고 화합된 하나의 마음으로 양산YWCA의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며, 지역 여성기독교시민단체로서 돌봄과 나눔, 생명사랑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결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2022년 시무예배



(사)울산YWCA의 2022년 시무예배가 1월 3일(월) 9시30분 YWCA 2층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울산YWCA는 2022년의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탈핵기후 운동 및 성평등 사업을 진

행해나가고자 한다.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울산YWCA를 응원한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기부금 전달식



진주YWCA에서는 12월 14일(화) 진주YWCA 3층강당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에나 좋은 것은 지역에 있다. - LH글로벌사업본부의 경남 썬 사랑" 사회공헌활동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존 글로벌사업 본부의 해외 사회공헌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부서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경남지역의 다양한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고 순환하는 지역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LH와 진주YWCA의 사회공헌활동은 2016년부터 올해로 6년째 진행되어오고 있다.

진해YWCA 서지원 간사

산모돌봄관리사 월례회



진해 YWCA는 2021년 1월 26일(수) 진해YWCA 교육장에서 산모 돌봄 관리사 월례회를 가졌다. 코로나 19로 인해 여러 대

면 월례회를 시행하지 못하다가 실무자 3명과 관리자 15명이 구성 설 명절을 앞두고 월례회를 가졌다. 규정선물 전달과 함께 연말정산 관련 설명, 직무상 애로점과 개선 사항 등을 나누고, 1월 28일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정기총회 등 진해YWCA 소식을 공유하였다.

창원YWCA 정지윤 간사

신임이사 교육



창원YWCA는 2월 17일(월), 신임이사 후보자 2인을 대상으로 신임이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옥희 직전 회장, 강봉희 이사, 반혜영 사무총장이 교육을 담당했다. 이날 교육을 받은 후보 2인은 제 33회 창원YWCA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인준받았다.

통영YWCA 변은실 팀장

원경숙, 최명자 이사 퇴임식



통영YWCA는 1월20일(목) 오후 2시 원경숙, 최명자 이사의 명예로운 퇴임식을 진행했다. 원경숙 이사는 통영YWCA 창립회장님으로 31년간, 최명자 이사는 26년간 통영YWCA의 이사로

역임했다. 두 이사는 통영시의 양성평등 정착과 시민운동에 앞장섰으며 사회봉사로 도남사회복지관 위탁, 간병사회조직,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자활 자립, 성폭력상담소, 통영지역자활센터, 여성회관 위탁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두 사람은 퇴임 후에도 통영YWCA와 지역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든든히 후원해 주실 것을 다짐했다.

포항YWCA

김민경 간사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포항YWCA는 지난 1월 25일(화) 아름다운가게 포항이동점과 함께한 아름다운 하루 나눔 바자회 수익금으로, 식료품 및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나눔 보따리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사업을 진행하였다.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사업은 설을 맞이해 포항지역

내 한부모·다문화가정, 홀몸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현물 나눔 보따리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추운 겨울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힘든 취약계층에 정성을 가득 담은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였다.

전라-제주권역

광양YWCA

이효진 간사

생활 방역 활동



광양YWCA는 12월 6일(월), 11일(화), 12일(수) 포스코 광양제철소 '돌보고 살피고 재능봉사단'과 협력하여 매일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른 아침 30명의 봉사단원(단장 유인섭)들이 광양시 전통시장(광양읍, 옥곡면, 중마시장)에 방문하여 시장 구석구석 열악한 환경 속 각종 병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친환경 미생물 EM을 활용해 생활 방역 활동을 했으며 시장 상인들과 시장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광주YWCA

김지연 간사

제 93회 정기총회



(사)광주YWCA는 1월 27일(목) 오후 2시 광주YWCA 1층 대강당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사, 위원, 실무활동가, 회장단 및 회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선옥회장은 총회사를 통해 2022년은 한국YWCA와 광주YWCA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여성과 함께한 100년 내일을 여는 광주YWCA' 라는 슬로건으로 (사)광주YWCA가 10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100년을 준비하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군산YWCA

황수미 간사

설 명절맞이 반찬 만들기 사업



군산YWCA는 1월 28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조리실에서 설 명절맞이 반찬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군산YWCA 재정마련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활동가와 실무자들이 함께 군산Y의 대표적인 판매 품목을 직접 조리하고, 군산지역의 특산품등 사전예약을 진행하여 판매하였다. 매년 명절 전 반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재정마련과 함께 군산YWCA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남원YWCA

박희정 간사

창립30주년 기념식



남원YWCA는 12월 16일(목)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 및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원YWCA에 헌신하신 분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 봉사상, 근속상을 전달하였다. 남원YWCA는 30주년 통해 기념사업 및 비전선언문 선포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실천할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사무총장 이·취임식



(사)목포YWCA는 1월 25일(화)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제9대 김은숙 사무총장이 이임하고, 제10대 박수현 사무총장이 취임했다. 이날 행사는 공로패 수여, 축하 및 격려 말씀, 이임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귀포YWCA

김지희 간사

'서귀포시MZ세대를 위한 청년토크콘서트' 개최



서귀포YWCA는 지난 12월 17일(금) 서귀포YWCA회관에서 서귀포청년들을 대상으로 '서귀포시MZ세대를 위한 청년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청년들의 취업 전략을 위한 크리에이터&1인미디어, 이미지메이킹&퍼스널컬러 진단, 창업을 위한 은반지공예체험이 진행됐다. 각 분야의 경험이 많은 멘토와 취업업의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부대행사로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과 'MZ세대를말하다'가 운영됐다.

(사)순천YWCA

신정옥 간사

정책협의회



(사)순천YWCA는 12월 13일(월) 정책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순천YWCA는 2020-2021운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2022-2023년 (사)순천YWCA 중점운동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사)순천YWCA는 한국YWCA연합회의 '탈핵기후생명' 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채택하고 여성·돌봄, 시민사회·환경, 청소년 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여수YWCA

김예랑 간사

"YWCA 다시 100년, RE 100"



(사)여수YWCA는 1월25일 오후 2시 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에서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0회(사단법인 2회) 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은, 개회예배(여친교회, 정훈 목사)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봉사상·회원 증모 우수자 및 근속 직원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이후, 2021년 사업 보고·2022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와 임원·공천위원·신입이사(1명) 및 회장 인준 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특히, 2022년에는 한국YWCA 전국 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 생명운동'이 선정됨에 따라 'YWCA RE100 "YWCA 다시 100년, RE 100"'이 전국 공통과제로 정해졌음을 알렸다. (사)여수YWCA에서도 2022년을 맞아, '기후야, 내가 변할게'라는 슬로건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월별 실천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YWCA

김다영 간사

탈핵기후생명운동 캠페인



익산YWCA는 2022-2023 전국중점운동에 동참하여 탈핵기후 생명운동에 20대 대선 선거대응활동을 더하여 1월 탈핵캠페인을 실시하였다. 2022탈핵대선연대에서 진행한 20대 대선 탈핵 정책 제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여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는 아님을 호소하고 탄소 중립을 명분 삼아 위험한 핵발전 발언을

하는 대선 후보들을 규탄하였다. 또한 익산 시민들이 20대 대선 후보들의 탈핵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유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탈핵 공약을 약속하는 후보를 변별하여 선거에 참여하기를 독려했다.

(사)전주YWCA

손예지 간사

사단법인 창립총회 개최



(사)전주YWCA는 지난 1월 20일(목) 전주YWCA회관에서 발기인 및 회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법인 설립취지 채택과 정관심의 임원선임 및 사업계획 심의 등이 이루어졌으며, 사단법인 전주YWCA 초대 회장으로 이현순 회장이 선출되었다. 전주YWCA는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통해 투명성과 책무성, 자치성을 가진 지역 운동조직으로 정의, 평화, 생명의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사)제주YWCA

박슬기 간사

찾아가는 회원증모 발대식



(사)제주YWCA는 12월 한 달간 부설기관 5곳(여성인력개발센터, 통합상담소, 초등·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성의숙터)과 함께 '찾아가는 회원증모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으로 회원증모발대식이 함께 실무자들의 YWCA의식 함양과 역량 강화가 진행되었다.

부담없이 진료 받으세요! 부담은 우리가 할게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2022년 1월 1일 부터 바뀔니다!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범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요양기관: 비용 결제 시 카드단말기의 할부개월란에 38(지급금 승인코드)을 입력

사용기간

이용권 발급일 ~ 출산일(유산·사산일) 부터 2년

확대 적용 대상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
※ 2022. 1. 1. 이전 신청건은 소급적용·취소·삭제 모두 불가 (신청 당일 취소도 불가능)

신청방법

- 카드사(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앱)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신청(임신만 가능)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요양기관에서 임신부와 영유아의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제도





한국YWCA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1922년 기독 여성들이
세상을 바꾸고자 창립한 한국YWCA가
2022년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고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YWCA가 되겠습니다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8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사)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사)전주	063.224.5501
고양	031.919.4040	(사)서울	02.3705.6000	(사)제주	064.711.8322
광명	02.895.1966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양	061.762.0012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사)광주	062.609.1300	(사)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군산	063.462.4491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사)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사)순천	061.744.7990	(사)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사)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사)대구	053.652.0070	(사)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사)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사)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사)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사)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